



2023

제2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

Contents

01 OVERVIEW

발간사	07
심사 총평	09
주제 선정	10
공모 개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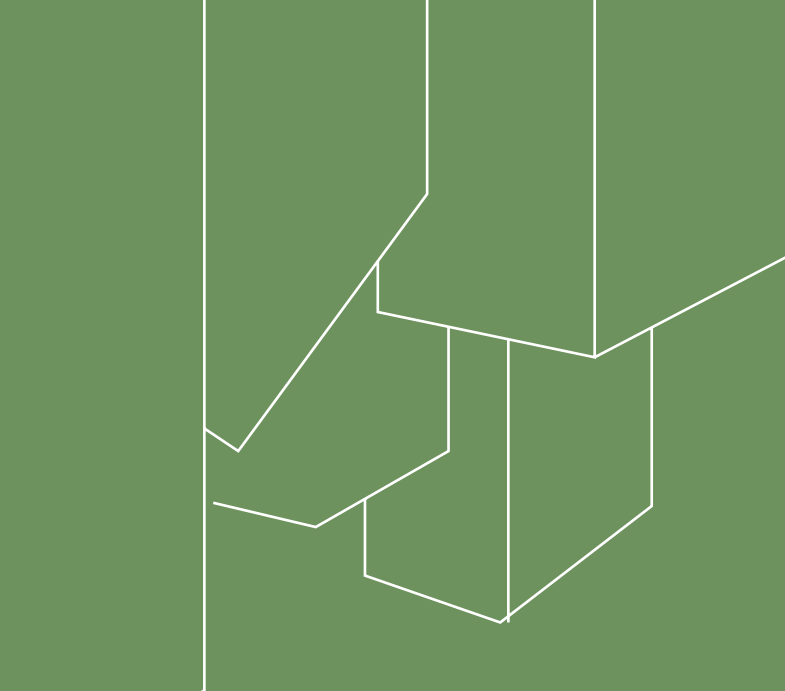
02 WINNERS

대 상 O(One)NE(Neighbor) : 한 이웃	김동영, 장보승	16
최우수상 품, 아이들을 품는 우리 마을	안유진, 함윤식	20
우 수 상 INside & Of yoUr sTory	이민태, 김도영	24
우 수 상 어깨너머, 담장공간	이재원, 성주원	28
우 수 상 smile-scape	이지호, 이승현	32
장 려 상 정글.zip	손지우, 황채은	36
장 려 상 너, 나, 우리 두레	김선재, 김지원	38
장 려 상 밍글 라이프-마당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하우스	송유빈	40
장 려 상 PALETTE	김류경, 최유빈	42

장 려 상 BOUNDA : RE	박수상, 최정현	44
장 려 상 C.T.Y : Care Together in Yard	김대욱, 이채린	46
장 려 상 올래:동네 골목에서 집 마당으로 통하는 길	이승수, 위영진	48
장 려 상 BE-LIEVING	박예진, 윤새미	50
장 려 상 COMMUNITY GROUND	황우성, 김예지	52
장 려 상 우리, 함께 놀래	장수원, 형지현	54
장 려 상 EXTEN(10)SION TO VILLAGE	김민정, 채윤서	56
장 려 상 모두의 마을	서영선, 문하은	58
장 려 상 모든 꼬마들이 모이지;모꼬지	최유승	60
장 려 상 선한 오지랖	이승준, 정현지	62
장 려 상 G_ROUND MAP	김우진, 구지영	64

03 GALLERY

갤러리	68
-----	----



2023 제2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



01 OVERVIEW

- 발간사
- 심사 총평
- 주제 선정
- 공모 개요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정운섭

작품집을 발간하며

먼저 무더운 여름의 더위 속에서 본 공모전에 참여하여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그동안 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사회적 이슈 실마리가 될 새로운 주거유형을 발굴해 왔고, 대한민국 건축분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창 의와 도전의 장을 제공해 왔습니다.

3D 영상작품 및 프리젠테이션, 판넬, 모형, 작품설명서 등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로 매년 역대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생’이라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라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아이를 중심으로 이웃들간의 교류와 소통이 살아나는 새로운 개념의 육아친화형 특화단지를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국 72개 대학의 274팀이 참가한 이번 작품들 중에는 육아라는 특성화 된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섬세하게 고려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이웃 간 교류와 소통으로 육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공간 등 참신하고 수준 높은 제안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LH는 저출생은 물론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을 이끌어 주신 총괄 코디네이터 국형걸 교수님과 심도있고 공정한 심사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주신 김수영 교수님, 이택구 교수님, 신창훈 대표님, 위진복 대표님 그리고 공모전을 진행하느라 고생한 주택기술단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국형길**

심사 총평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학생들이 건축과 도시, 그리고 공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었습니다.

공모전 주제의 취지는 함께 아이를 돌보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개념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도 이웃들이 서로 같이 돌보고 지켜줄 수 있는 단지, 아이를 통해 사라져가는 공동주택의 교류와 소통이 살아날 수 있는 단지, 폐쇄적이고 삭막한 사적공간의 집합체가 아닌 보다 개방적이고 친밀한 마을 같은 단지를 기대하였습니다.

육아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상상과 제안이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들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매우 인상적이고 열정적인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주제가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서 적극적이고 학생다운 과감한 시도가 많지 않았던 면이 다소 아쉬움으로는 남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있는 학생들의 고민과 노력이 작품에 잘 드러나 심사위원 모두가 감동하고 즐겁게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발표와 심사위원들의 토론도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저도, 심사위원들도 건축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희망을 보는 자리였고, 학생작품들을 통해 한국 건축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심사에 수고해주신 경북대 김수영 교수님, 배재대 이택구 교수님, UIA건축 위진복 대표님, 운생동 신창훈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시고 수고해주신 LH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상여부를 떠나 이번 주제에 대한 건축적 고민을 함께해 준 참가학생들 모두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2023. 12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

커뮤니티 케어 하우스(Community Care Housing)은 저출생 사회에 대응하는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하는 복합단지의 개념을 넘어 자녀 보육을 매개로 한 공동주거 커뮤니티의 생성과 활성화를 통해 함께 돌보고 함께 키우는 새로운 개념의 육아친화형 특화단지의 제안을 기대한다.

저출생 사회의 어두운 미래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로 매년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다. 이는 10년째 OECD 최하위의 출산율로 최근 10년간 절반수준인 25만명 아래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노령인구의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경제 활동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어려운 사회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상승, 혼인율 감소, 교육비 상승, 경제적 불평등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와 얽혀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 중 하나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젊은 층에서 생업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 시설과 보육 인프라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함께 돌보고 함께 키우는 공동주거

과거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부터 마을에서는 아이가 교류와 소통,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다. 자기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웃들끼리 서로의 어린이를 돌보고 지켜보고 보살펴왔다. 초기의 우리나라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단지 배치의 중심적 역할이 되곤 하였다. 그러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동네 친구, 동네 아줌마와같이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수십여년 사이 주거의 정주성이 점차 사라져 가면서 이웃 간의 교류도 감소하였고, 자연스럽게 공동주택은 폐쇄적이고 삭막한 사적 공간화 되어갔다.

아이를 중심으로 만드는 공동 주거는 어떠한 모습일까?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 공간과 보육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복합주거단지이면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웃들 간의 교류와 소통이 살아나는 공동체를 우리는 다시 상상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 하우스에 대한 창의적인 상상과 다양한 탐구가, 궁극적으로 양육의 두려움을 벗어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가는 시작점이자 사라져가는 공동 주거 커뮤니티 복원에 있어서 새로운 변곡점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목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력개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

코디네이터

국형걸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심사위원

김수영 교수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이택구 교수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위진복 대표 UIA 건축사사무소	신창훈 대표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	----------------------	----------------------	----------------------

참가자격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1팀 2인 이내

대상지

위 치_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95,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별관
대지면적_ 9,947㎡ / 일반상업지역

참가신청

참가신청 및 질의응답 기간
2023.06.13 ~ 2023.06.30

작품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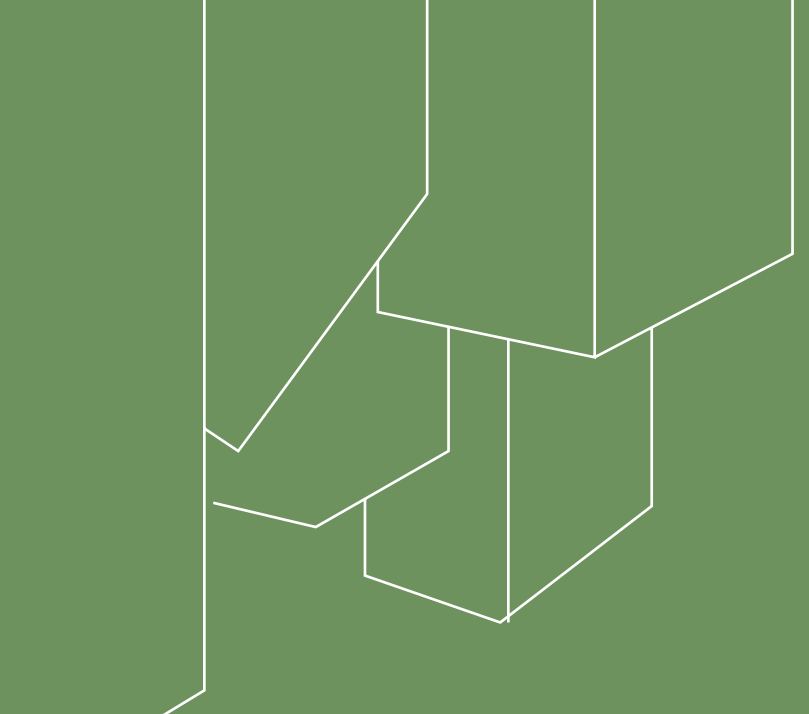
1차 접수_ 2023. 08. 02 / 판넬 및 작품설명서 제출
2차 접수_ 2023. 09. 08 / 판넬, 모형 및 영상 콘텐츠 제출

작품심사

1차 심사_ 2023. 08. 11
2차 심사_ 2023. 09. 15

발표 및 시상

당선작 발표_ 2023. 09. 20
시 상 식_ 2023. 12. 4



2023 제2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



02 WINNERS

- 수상자
- 수상 작품집

WINNERS

제2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

수상자



O(One)NE(Neighbor) : 한 이웃
가천대 | 김동영, 장보승



품, 아이들을 품는 우리 마을
홍익대 | 안유진, 함윤식



INside & Of yoUr sTory
동명대 | 이민태, 김도영



어깨너머, 담장공간
경기대 | 이재원, 성주원



smile-scape
국민대 | 이지호, 이승현



정글.zip
동의대 | 손지우, 황채은



너, 나, 우리 두레
동아대 | 김선재, 김지원



**밍글 라이프
- 마당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하우스**
창원대 | 송유빈



PALETTE
동서대 | 김류경, 최유빈

WINNERS

제2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

수상자



BOUNDA : RE
계명대 | 박수상, 최정현



C.T.Y : Care Together in Yard
부경대 | 김대욱, 이채린



올래: 동네 골목에서 집 마당으로 통하는 길
서울시립대 | 이승수, 위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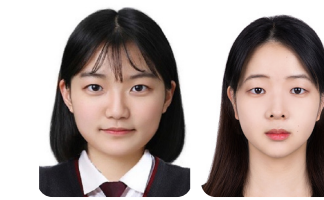
BE-LIEVING
명지대 | 박예진, 윤새미



COMMUNITY GROUND
중부대 | 황우성, 김예지



우리, 함께 놀래
경기대 | 장수원, 형지현



EXTEN(10)SION TO VILLAGE
명지대 | 김민정, 채운서



모두의 마을
서울과학기술대 | 서영선, 문하은



모든 꼬마들이 모이자:모꼬지
국민대 | 최유승



선한 오지랖
성균관대 | 이승준, 정현지



G_ROUND MAP
충남대 | 김우진, 구지영



O(One)NE(Neighbor) : 한 이웃

대상

TEAM | 김동영, 장보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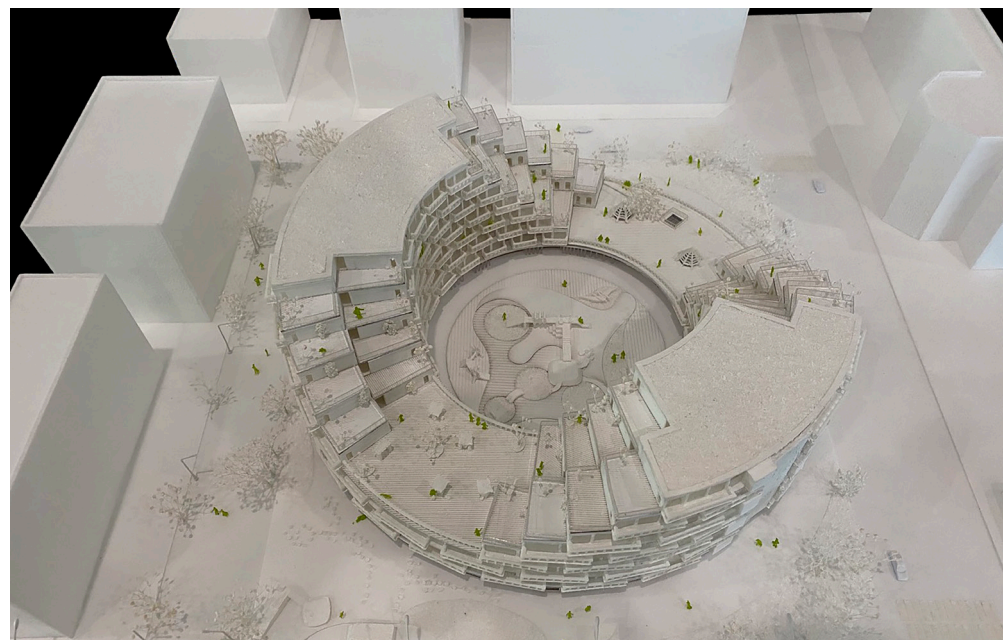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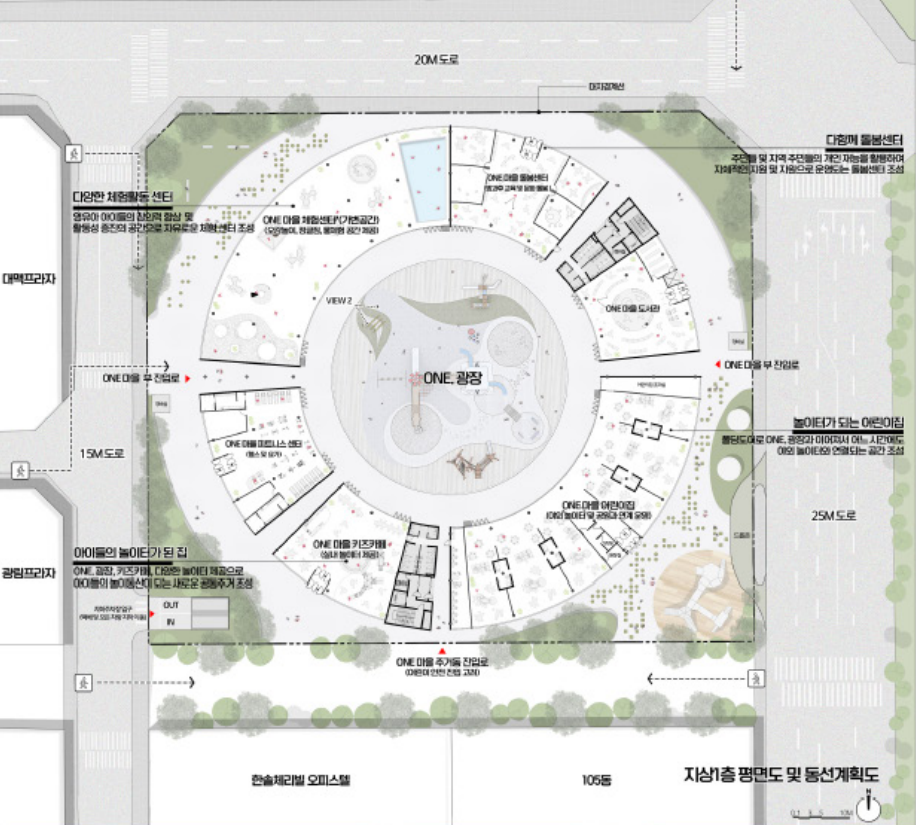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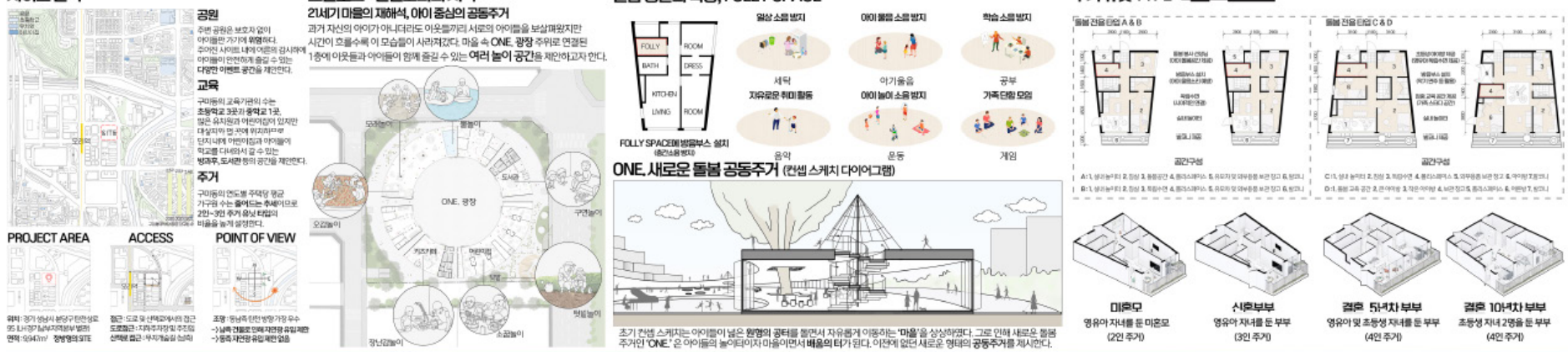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돌봄에 대한 과제’는 더욱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접촉에 대한 반감과 이웃에 대한 불신은 ‘돌봄과 보육’을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금 일상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인 반감과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ONE. 한 이웃’ 육아 친화형 복합주거는 과거 전통마을에서 아이가 교류와 소통,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모습을 토대로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각 공간에는 아이들의 돌봄 및 교육 공간을 배치함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야외 커뮤니티 공간의 연결을 통해서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합니다. 또한, 야외 발코니를 통해 자연과의 접촉을 기대하며, 모듈러 계획을 통한 주거동의 수직 및 수평적인 이격으로 ‘층간소음’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육아 친화형 복합주거 ONE’이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삶의 안식처가 되길 기대합니다.



[illegible]

프롤로그: 연결고리의 시작

주거유닛 TYPE 0 1 3 2 10



ONE. 마을 프로그램

건축계획 | ARCHITECTURE ELEVATION

프로세스





품, 아이들을 품는 우리 마을

최우수상

TEAM | 안유진, 함윤식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품, 아이들을 품는 우리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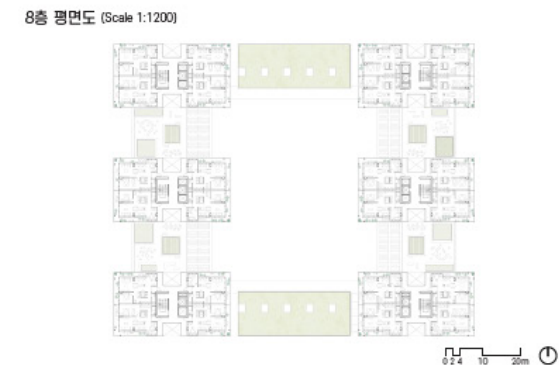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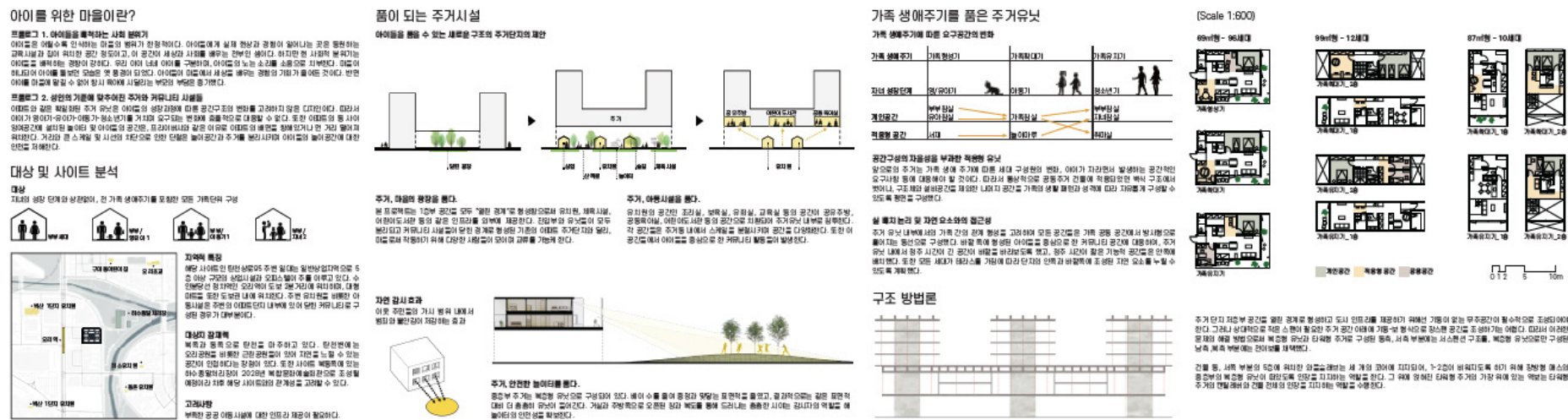


INTRODUCTION

본 프로젝트는 ‘품다’라는 개념을 사용해 현대의 사회적, 물리적 제반 사항을 개선하고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을을 형성하는 새로운 구조의 주거단지를 제안한다.

1층부 공간을 비워내고 “열린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커뮤니티 시설들이 닫힌 경계로 존재하는 기존의 아파트단지와 달리,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유치원의 공간인 조리실, 보육실, 유희실 등이 공유주방, 공동육아실, 어린이도서관 등의 공간으로 치환되어 주거동 내부로 침투하여 주거동 내에서 스케일을 분절시켜 공간의 경험을 다양화하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작동한다.

또한 구조체와 설비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가족의 생애주기와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평면을 구성했다. 이러한 공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스펜션 구조와 전이보를 제안한다.





INside & Of yoUr sTory

우수상

TEAM | 이민태, 김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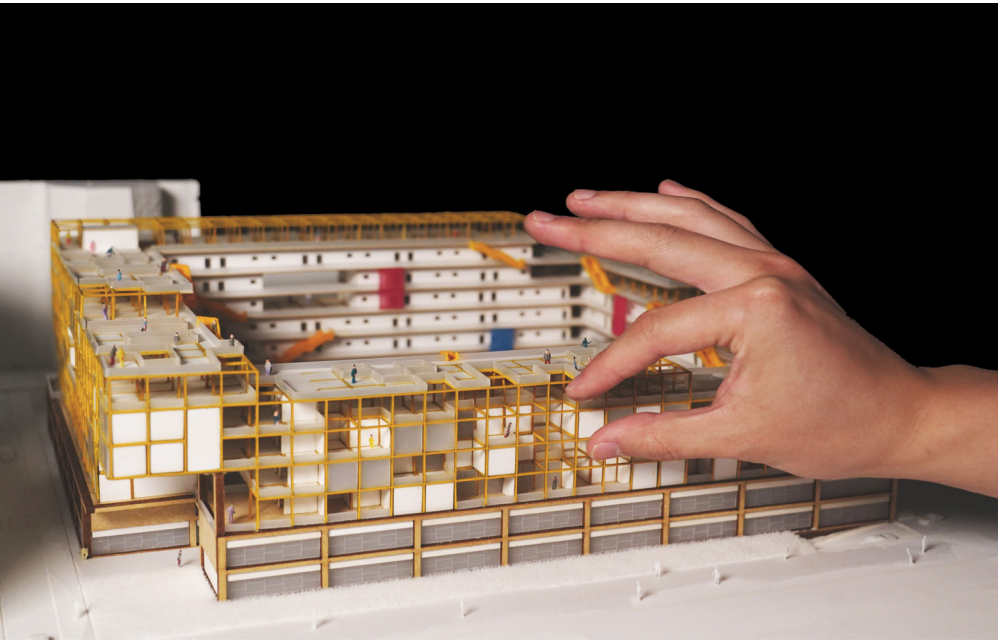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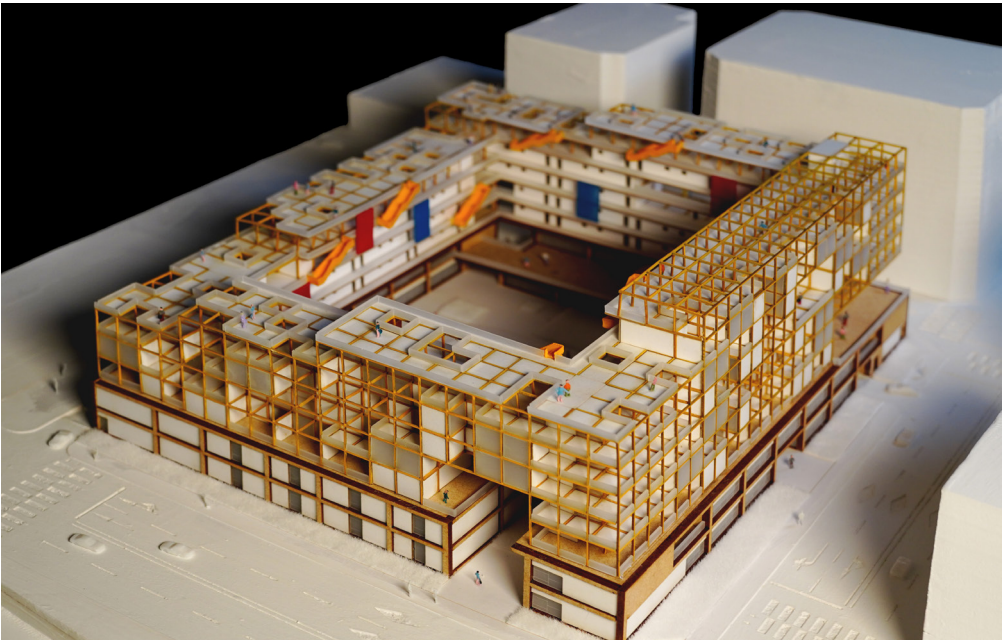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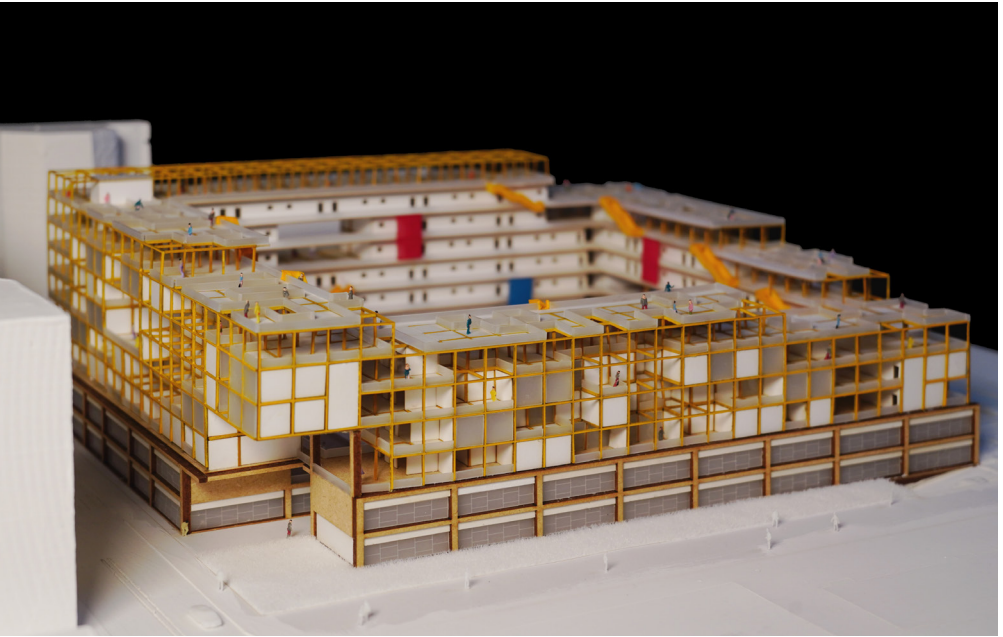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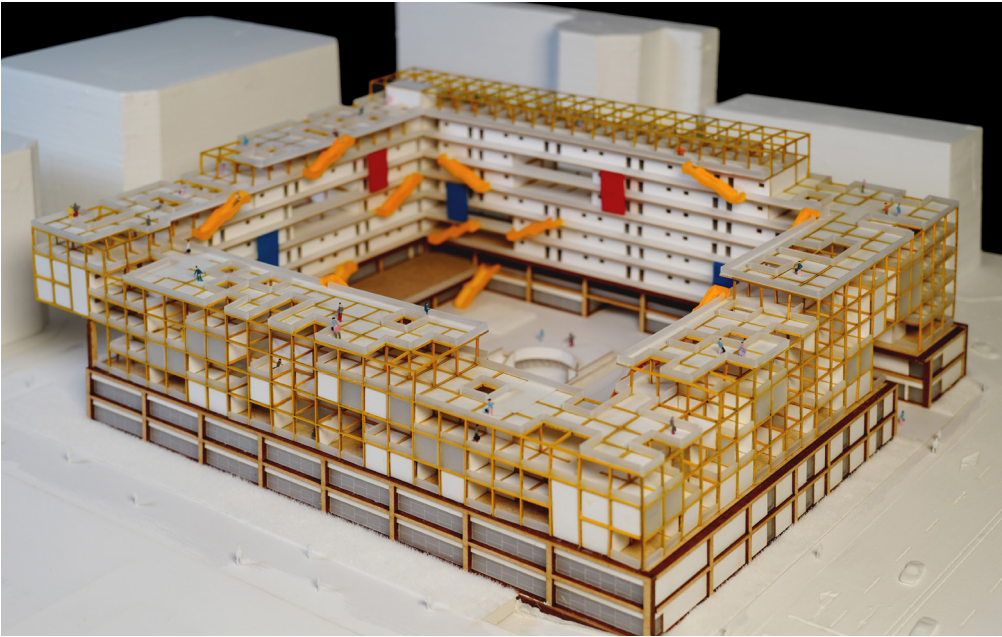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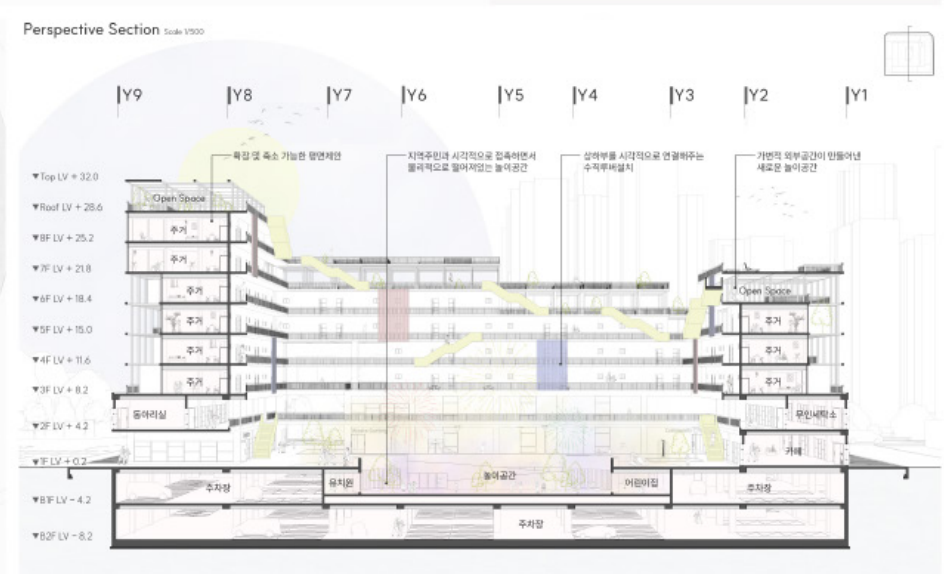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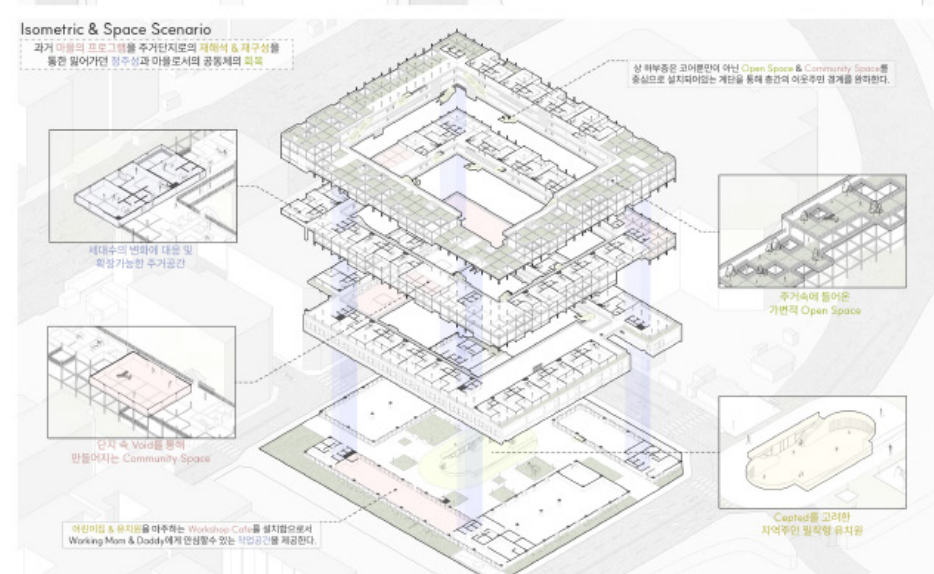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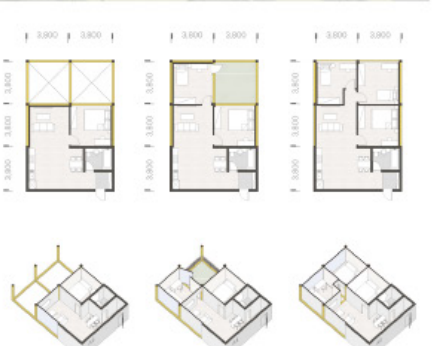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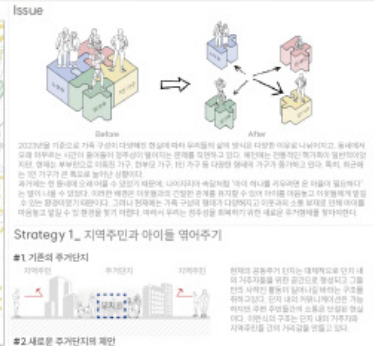
INTRODUCTION

CONCEPT_IN & OUT : 인필식(INFILL) 공법은 비용이 저렴하여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시 다음에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거주자들의 니즈에 맞춰 공간의 변형이 가능한데, 이러한 장점들을 통하여 거주인들의 정주성을 높여주어 이웃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육아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회복하고자 한다.

지역주민과 아이들 엮어주기 :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 주거는 단지 내로 지역주민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지하 선크의 형태로 육아 시설을 구성하여 단지 외의 사람들도 상가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마추하는 등 시각적 소통이 일어나도록 설계한다.

우발적 만남을 유도하는 동선 체계 : 기존의 공동 주거 형태에서 이웃들 간 소통 부재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도와 E/V 사이에 열린 쉼터와 커뮤니티를 넣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웃들 간의 우발적인 만남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어깨너머, 담장공간

우수상

TEAM | 이재원, 성주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오늘날 연령층에 따라 구분되는 거주지 분리 현상은 다른 세대와의 간접 경험의 부재를 만든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를 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곧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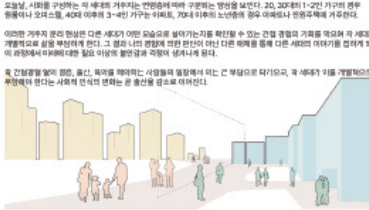
‘어깨너머, 담장공간’은 가장 사적인 주거공간이지만, 이웃과 접점을 늘리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이는 담장공간이라는 매개공간을 통해 시선이 교차하고, 각 세대의 특징을 띄며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담장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소통을 늘린다. 이러한 공동육아를 통해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식은 1인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선순환을 만든다.





PROLOGUE_ 간접 경험의 부재



SITE CON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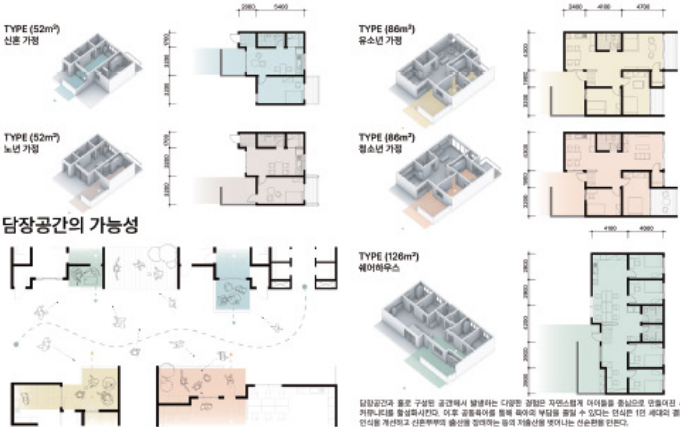
CONCEPT_ 어깨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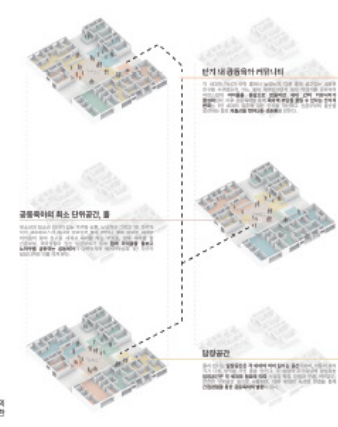
PROGRAM_ 담장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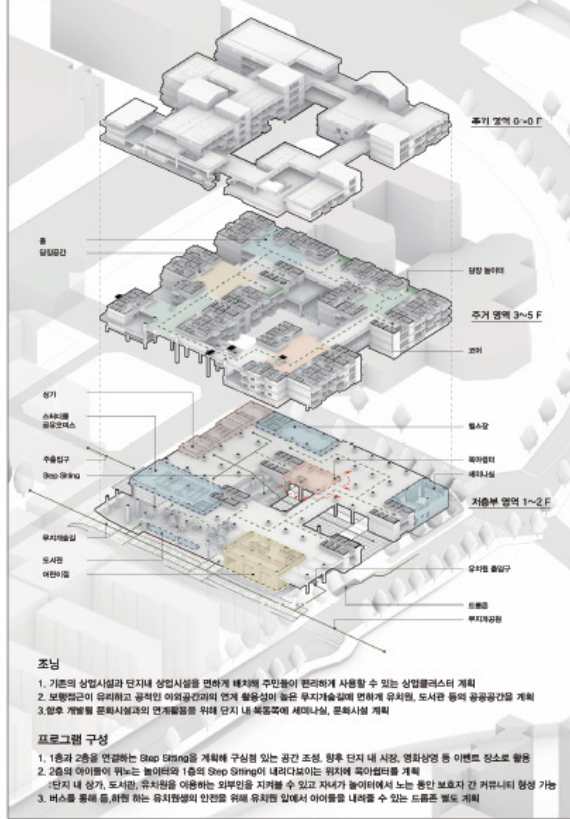
HOUSING UNIT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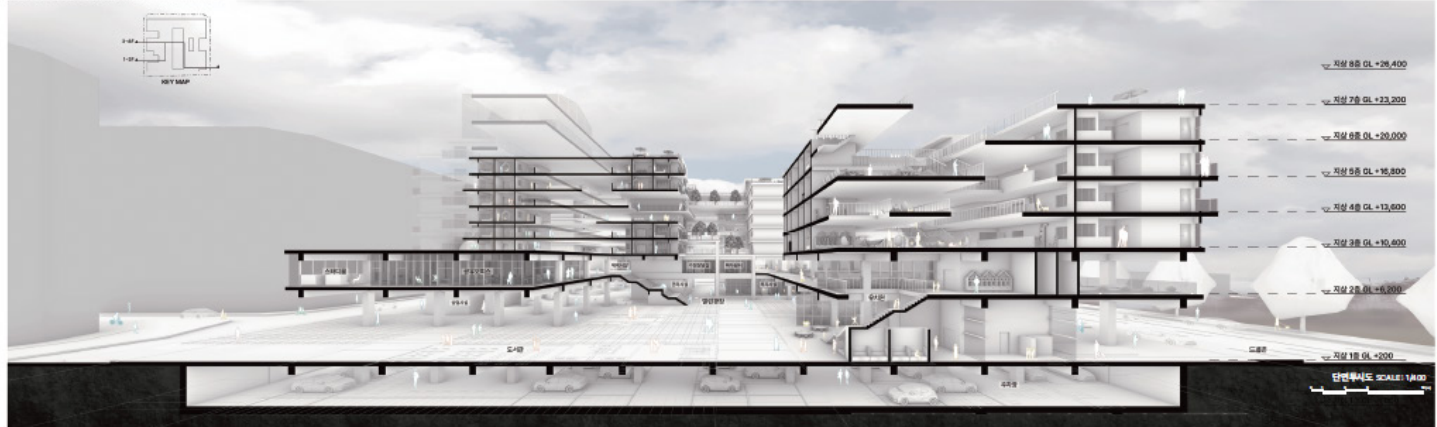
ZONING PROCESS_ 홀 간의 연결



ISOMETRIC



PERSPECTIVE SECTION



PLAN





smile-scape

우수상

TEAM | 이지호, 이승현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SMILE-SCAPE는 유치원과 연결된 놀이터로부터 시작된 동선이 각각의 주거 유닛들의 배치와 형태로 만들어지는 놀이공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지나는 신개념 놀이동선형 주거입니다. 기존의 수직적 이동장치인 엘리베이터, 계단의 요소는 램프를 이용한 수평적 수직적 놀이공간으로 변화합니다.

램프를 따라 접하는 주거 유닛은 전통사회의 마루, 마당, 골목길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거 유닛들은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 다른 성격의 공유놀이마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두개의 동을 이어주는 브릿지는 계단의 하부공간과 램프를 이용해 4~8층을 수직적으로 어우르는 아이들의 공유 놀이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거 유닛들과 놀이공간들은 놀이동선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유치원의 놀이터부터 시작되어 각각의 아늑한 집으로 가는 동선이 되며, 큰 중정형의 셉티드 공간부터 다양하게 세분화된 셉티드 공간이 존재하는 육아단지가 됩니다.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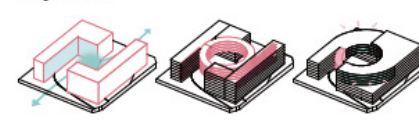
[illegible]

Sit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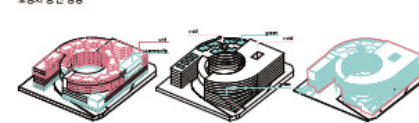


Urban	Connect	Access
현행법상 시·군에 두고 지사들이 관리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 및 복지 지원되는 접근성이다.	동행 복지 '우리장은'은 시·군을 및 기초지자체에 복지 공간이다. 복지 공간을 통해 복지 지원되는 주요도이다. 시·군에 조성된 일부 읍면동소속 읍면동에 소관,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다.	대형지자체의 도청 접근성 대형지자체의 도청은 시·군에 가깝고, 남부지방의 '우리장은' 가까이 복지 지원되는 일부 지방은 동행복지에서 접근성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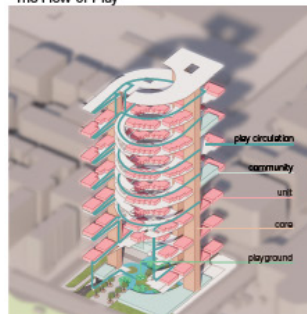


중장병의 생김새 퍼스를 중심으로 두꺼운 퍼스를 중심으로 얇고 볼이 동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오리새와 오리새를 잇는 이렇듯 볼이 동전 계획 브릿 지와 퍼스의 변형



●이동선을 중심으로 주가흐름과 커뮤니티 공간 계획	●이동선 그리드에 따른 보이드 및 복합공간 형성과 대중교통의 색채를 통해 외부인 시선 및 소음 차단	●공간별 볼 이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향이 작용한 볼이동로 주어진 경관단지
--	--	--

The Flow of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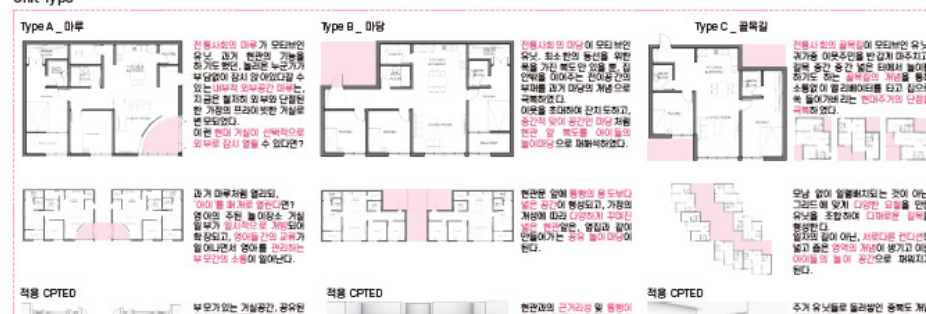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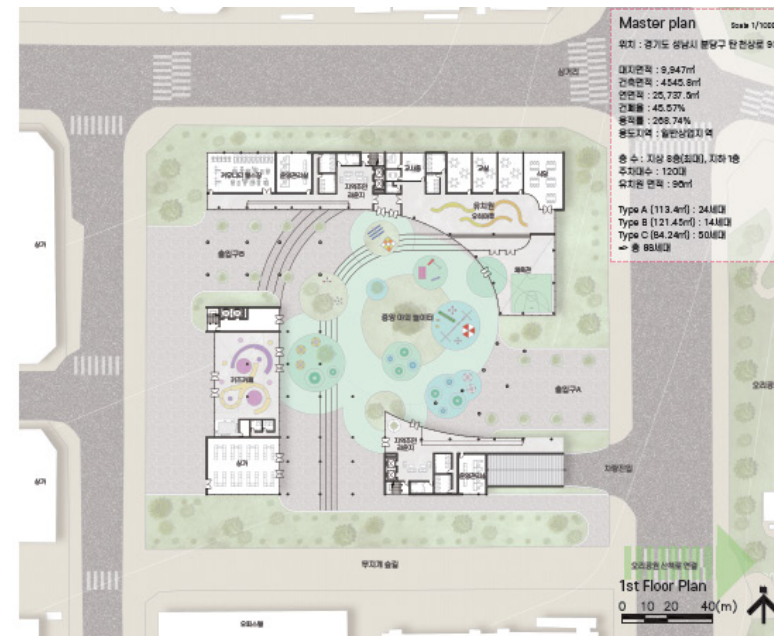


자연농업을 지지하는 기존 농업인 계층은 주거시설 내부로 수용되어 순환하는 농업인을 형성하고, 이는 '농이주거'라는 새로운 계층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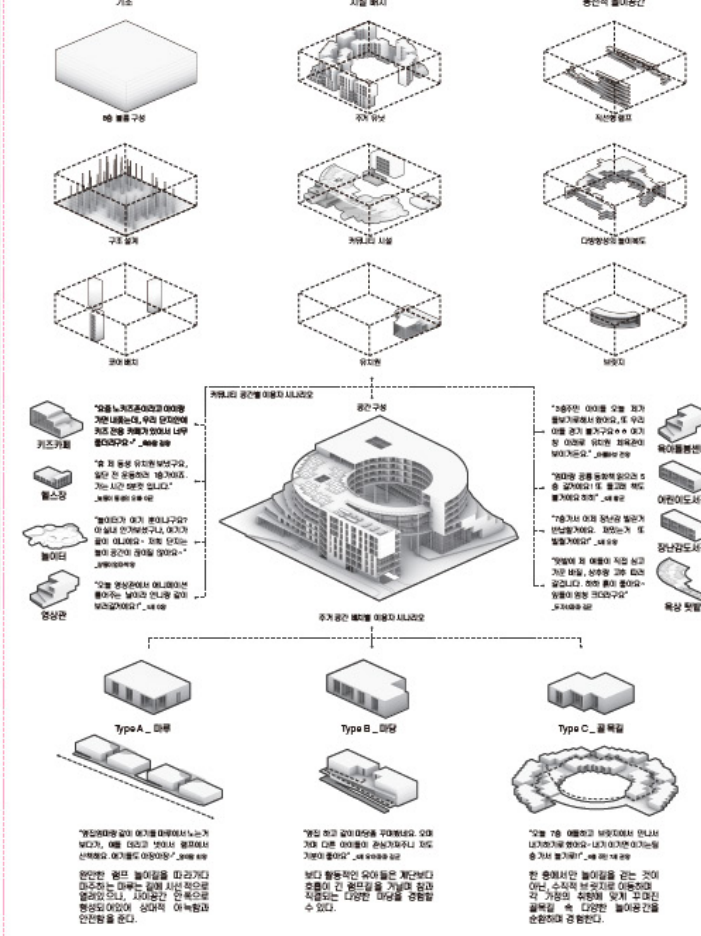
Bridge Design

[illegible]

Unit Typ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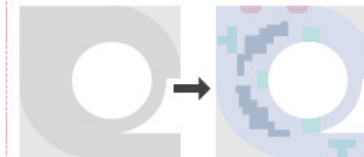
Scenarios



Section



Subdivision of CPTED



“원형으로 돌려보낸다는 건 눈에는 잘보인다고는, 느슨하고 무질서한 지리정보로 OPTED 구현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공간의 형태와 유기구조의 각 상황에 맞게 비현실적인 OPTED 공간에 녹아있음을 알 수 있다.

Scene





정글.zip

장려상

TEAM | 손지우, 황채은



프로그램 - 맺어진 '마음의 여유'
문제해결

컨셉 - 정글.zip
정글.zip이란 '정글'과 'zip'의 합성어로, '정글'은 자연의 생태계를 의미하며, 'zip'은 압축 파일을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속에서 자연의 생태계를 모방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닛타입
유닛타입은 커뮤니티와 자연 생태계, 그리고 도시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유닛타입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유닛타입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컨셉 전략 - 비움 속 비움을 채운다
비움 속 비움을 채운다는 것은, 도시 속에서 자연의 생태계를 모방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면투시도
단면투시도는 건축물의 단면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으로, 건축물의 높이, 층수, 그리고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듈형
모듈형은 건축물의 모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닛타입
유닛타입은 커뮤니티와 자연 생태계, 그리고 도시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유닛타입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유닛타입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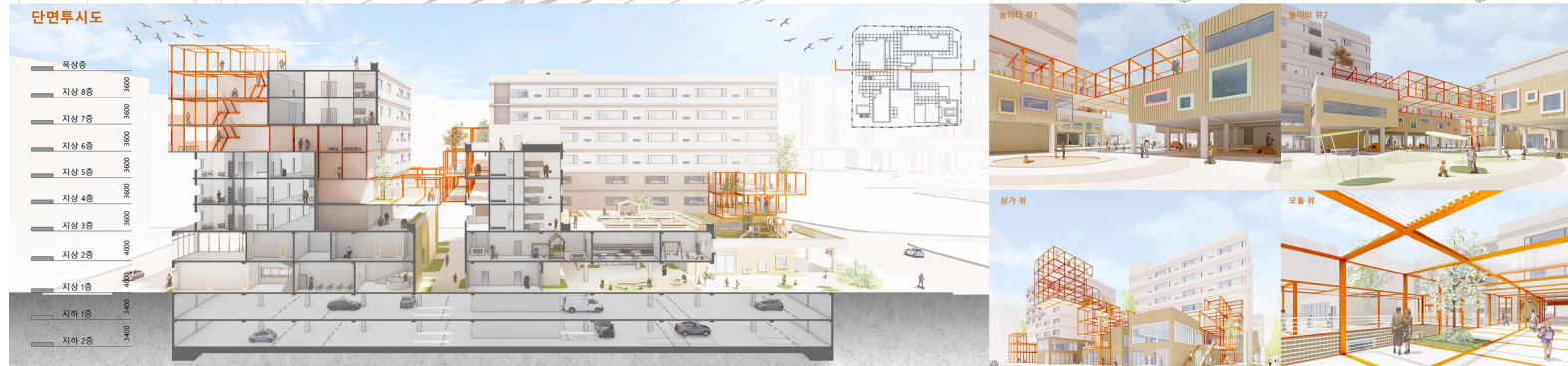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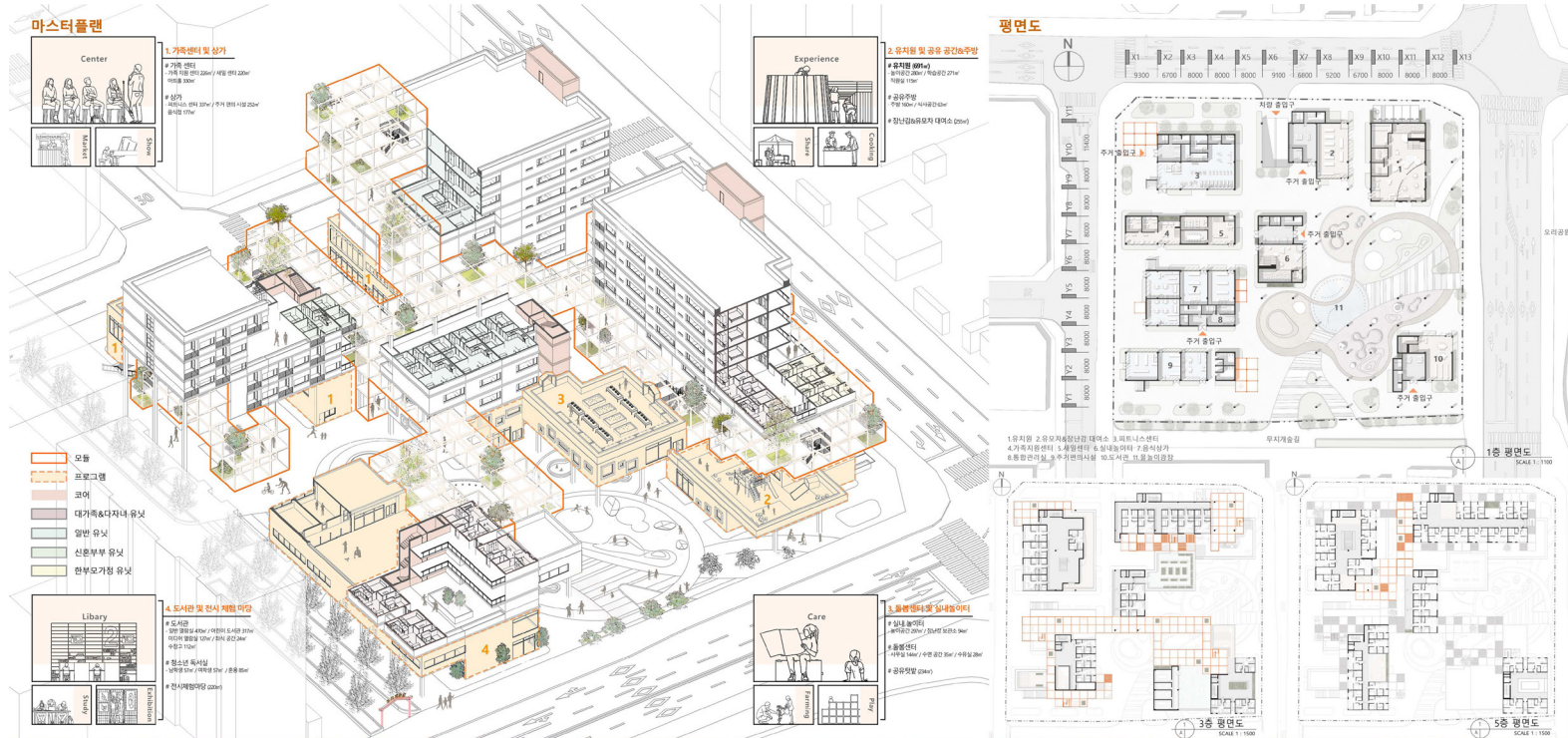
컨셉 전략 - 비움 속 비움을 채운다
비움 속 비움을 채운다는 것은, 도시 속에서 자연의 생태계를 모방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면투시도
단면투시도는 건축물의 단면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으로, 건축물의 높이, 층수, 그리고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듈형
모듈형은 건축물의 모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NTRODUCTION

현재 청년들이 육아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육아 활동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적 부담을 줄여 여유를 확보하고 그 안에 육아라는 요소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글.ZIP'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를 계획하고자 한다. 정글.ZIP이란 '정글'과 'ZIP'의 합성어로, 아이들에게 주거 단지 내 어디서든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청년에게는 단지 내의 프로그램과 휴게 공간을 통해 삶의 용량(부담량)을 줄여주어 여유를 되찾아 주고자 하는 개념이다. 주거 공간 사이에 비워진 공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 정육면체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모듈을 채워 빈 공간 속에 또 다른 빈 공간을 마련한다.





너, 나, 우리 두레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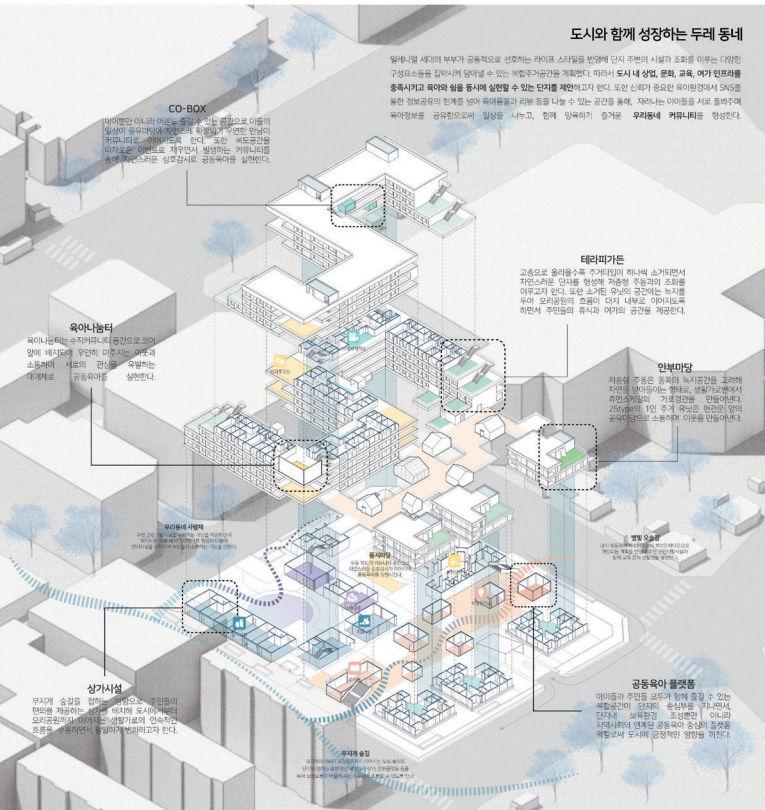
TEAM | 김선재, 김지원



INTRODUCTION

과거처럼 공동주택도 부모들이 육아를 이웃과 나누며, 이웃들끼리 서로 안부를 묻는 문고리 문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활발한 이웃 교류를 통해 정겨운 이웃을 만들어내며, 주거에 다양한 도시 기능을 포함하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양육하며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

[일상 나눔의 실현] 복도 없는 점적공간으로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가변형 평면을 통해 아이 성장에 맞춘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쾌적한 양육환경을 위한 단지를 제안한다. 이웃과 이웃은 커뮤니티 복도를 통해 소통하며, 주동과 주동을 연결해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동네 둘레길을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단지는,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공동육아를 실현한다. 육아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체가 형성되고 단지 내 부대시설과 마당을 통해 활력있는 동네로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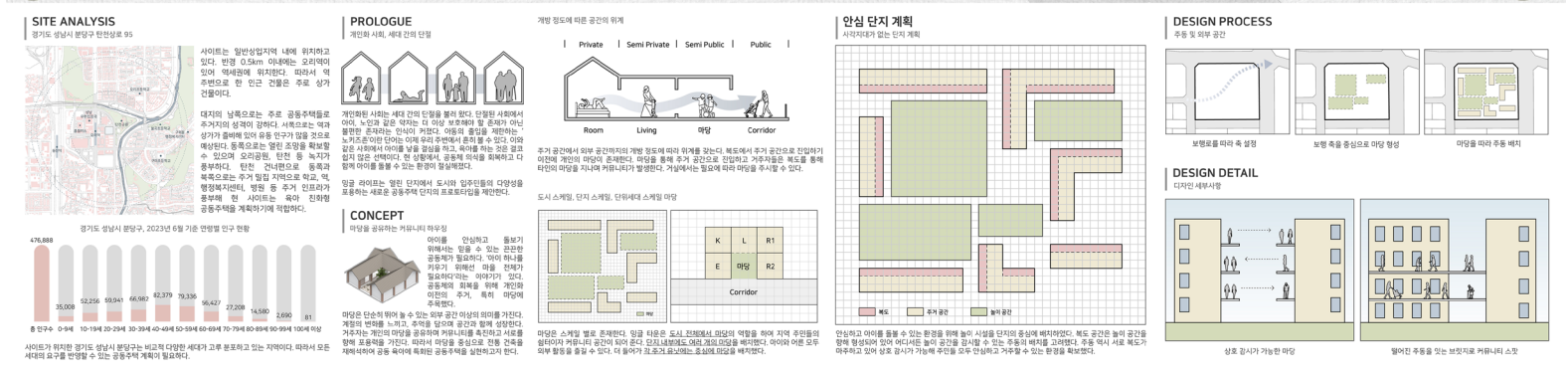




밍글 라이프-마당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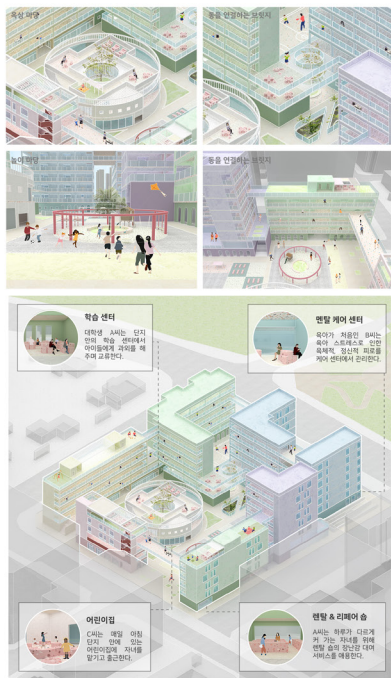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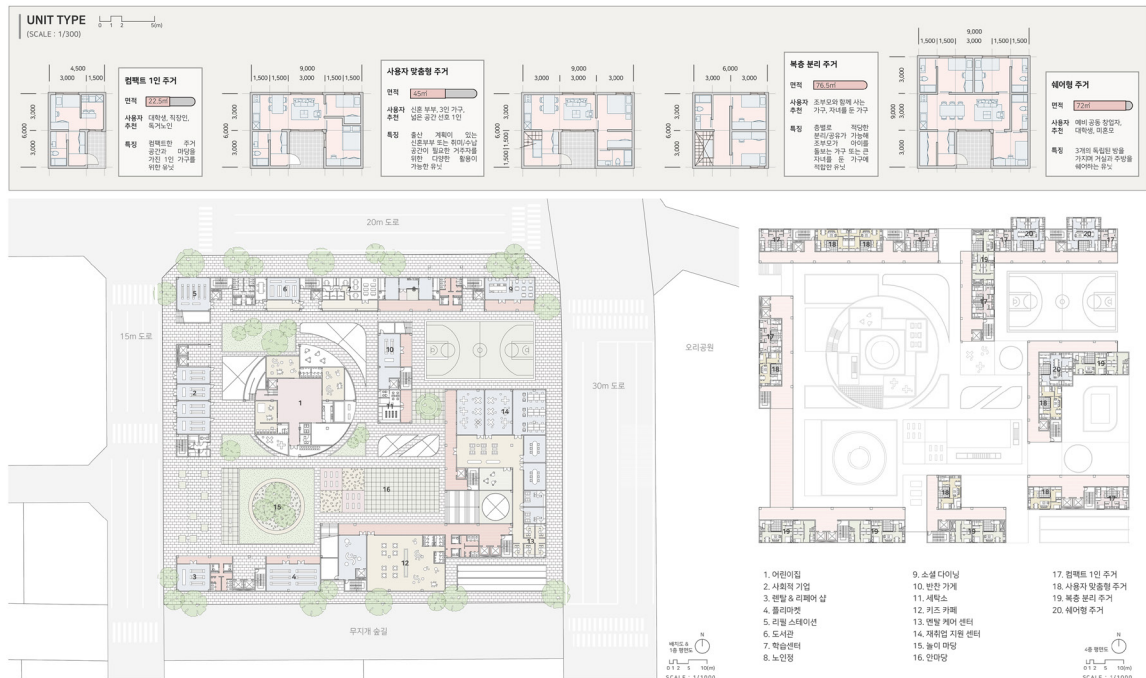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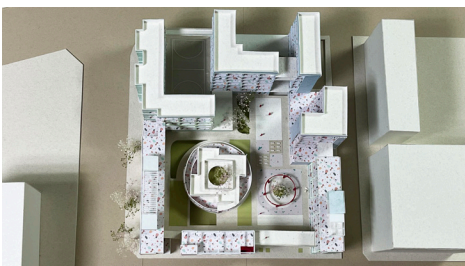
장려상

TEAM | 송유빈



INTRODUCTION

밍글 라이프는 단절된 세대 간 주민들의 화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의 프로토타입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본다면 ‘개인화’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 개인화된 사회는 세대 간의 단절을 불러 왔다. 단절된 사회에서 아이, 노인과 같은 약자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닌 불편한 존재라는 인식이 커졌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현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다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절실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개인화 이전의 주거, 특히 마당에 주목했다. 마당은 단순히 뛰어 놀 수 있는 외부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추억을 담으며 공간과 함께 성장한다. 거주자는 개인의 마당을 공유하며 커뮤니티를 촉진한다. 따라서 마당을 중심으로 전통 건축을 재해석하여 공동 육아에 특화된 공동주택을 실현하고자 한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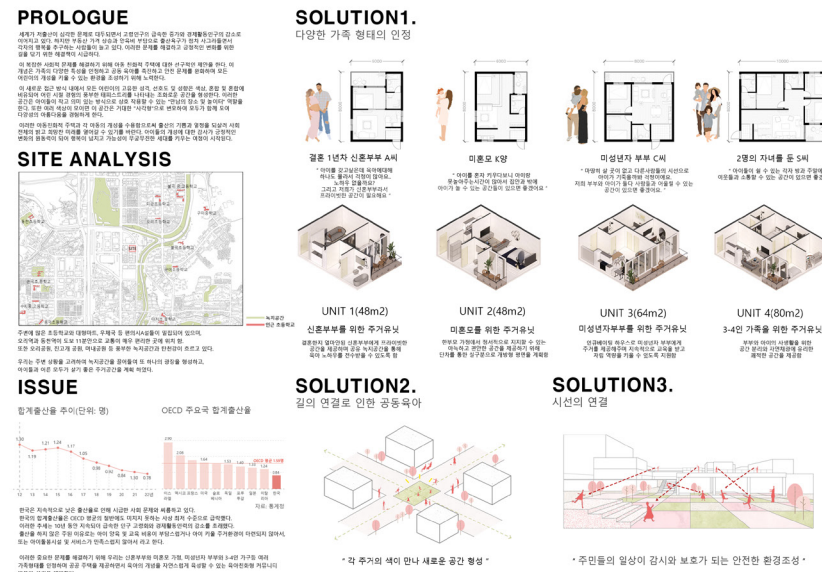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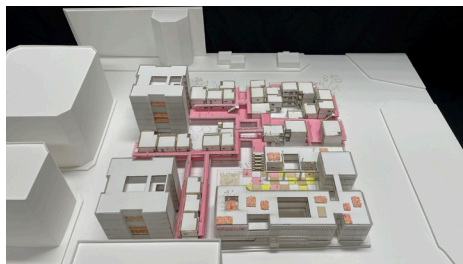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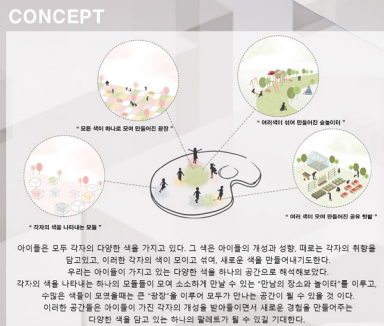




TEAM | 김류경, 최유빈



세계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 욕구가 점차 사그라들면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친화적 주택에 대한 선구적인 제안을 하려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가족의 다양한 유형을 인정하고 공동육아를 촉진하고 안전 문제를 완화하며 모든 어린이의 개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 그 색은 아이들의 개성과 성향, 때로는 각자의 취향을 담고 있고, 이러한 각자의 색이 모이고 섞여,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모든 어린이의 고유한 성격, 선호도 및 성향은 색상의 혼합에 비유되며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아이들이 가진 각자의 개성을 받아들이면서 색을 칠할 수 있는 하나의 팔레트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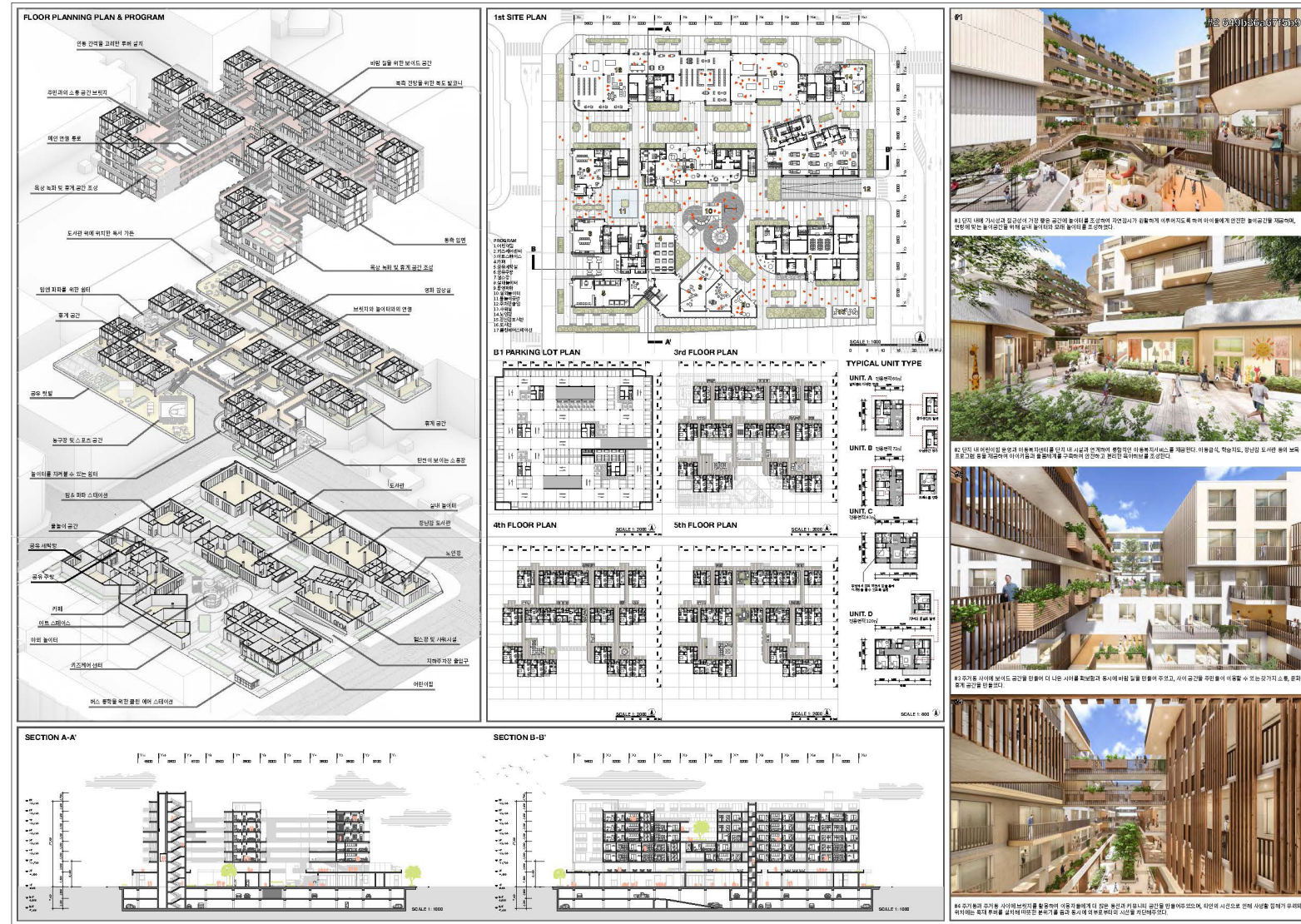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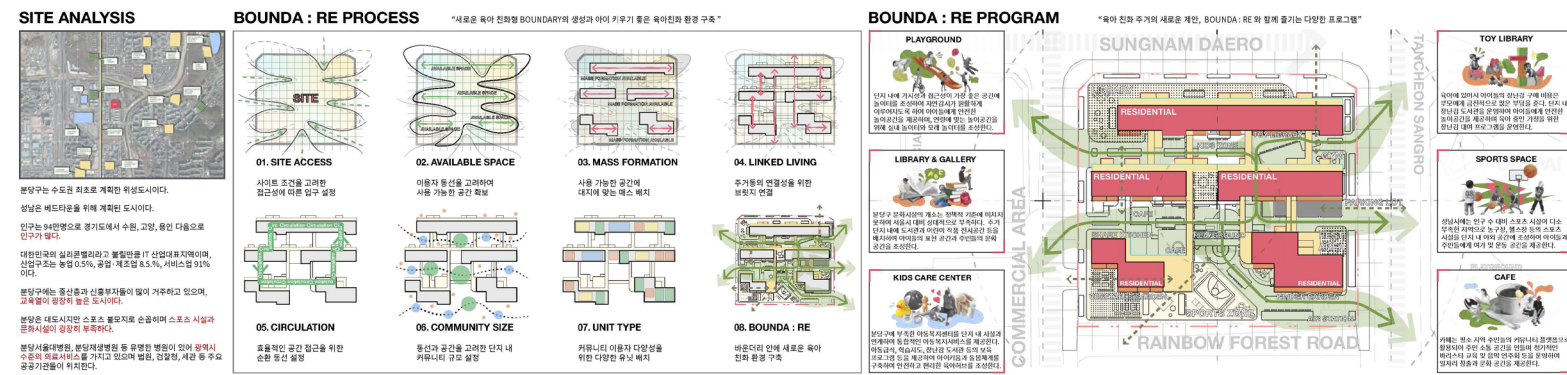
장려상

TEAM | 박수상, 최정현



INTRODUCTION

우리는 **BOUNDA : RE**를 통해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도시에 새로운 육아 친화형 BOUNDARY의 생성과 육아 친화 환경 구축을 통해 함께 돌보는 마을공동체를 제안한다. 아이를 중심으로 이웃 간에 많은 커뮤니티 공간이 생길길 희망했고 주거 단지 또는 이웃 규모에서 공간 간의 이동성이 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건물 내 통선은 BOUNDA : RE에서 컨셉을 주도한다. 주거동을 연결하는 여러 개의 개방형 복도와 함께 개방형 발코니는 개인과 공동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BOUNDA : RE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아이를 중심으로 한 소통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통합적 공동 공간으로 작동할 것이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C.T.Y : Care Together in Y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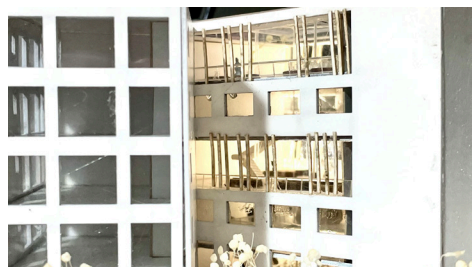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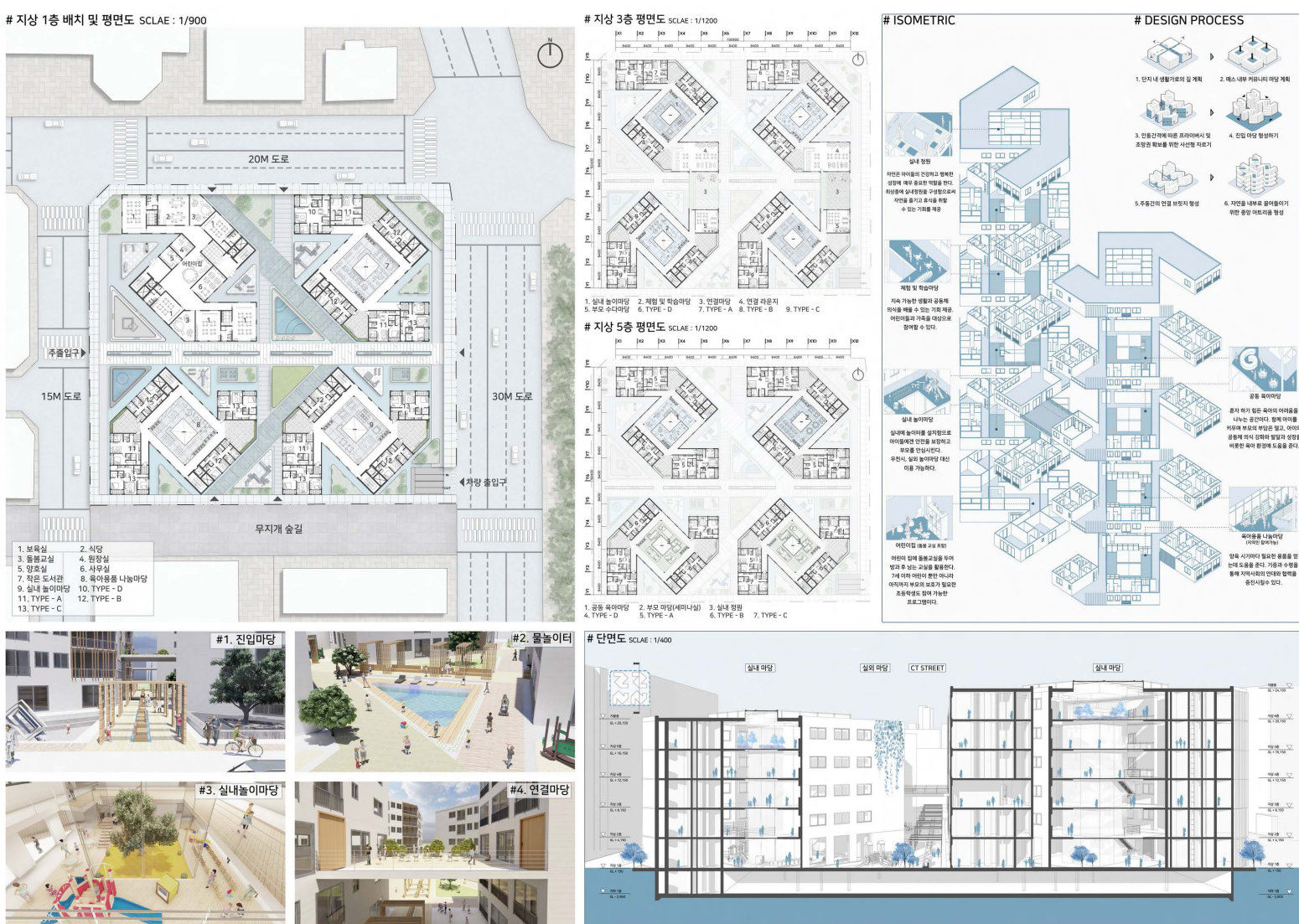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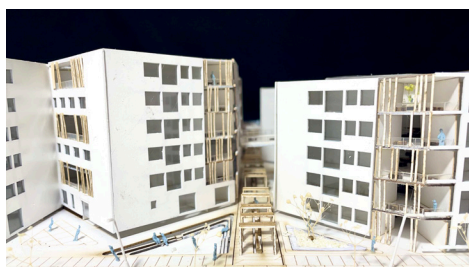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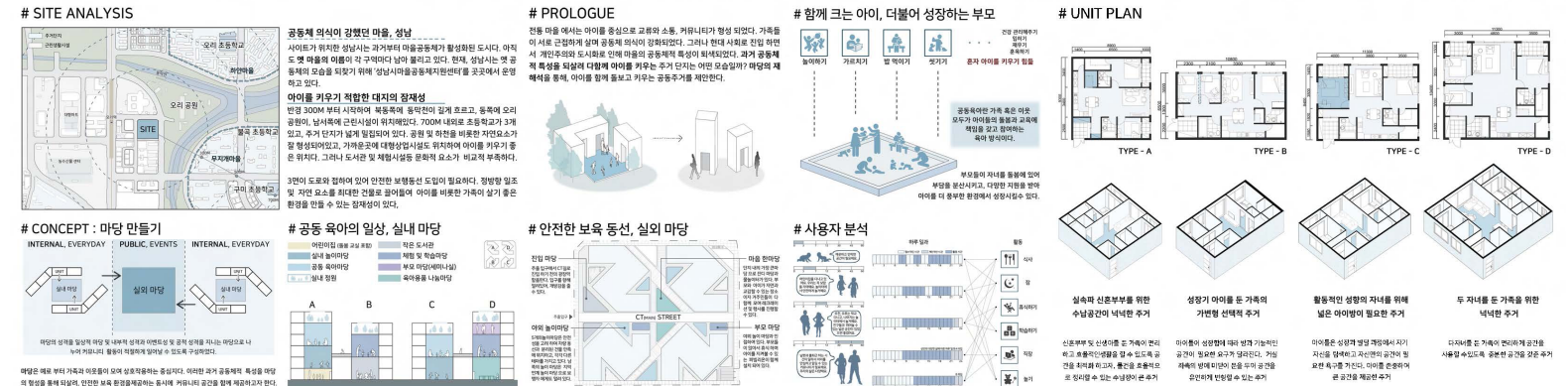
장려상

TEAM | 김대욱, 이채린



INTRODUCTION

과거의 주거에선 무엇이 그들의 교류와 소통을 활발하게 하였을까?란 고민을 가졌고, 예로부터 휴식, 축제, 이벤트 등 각종 커뮤니티를 담아내는 공간인 마당이 떠올랐다. 마당의 특색을 현대 아파트의 형식과 접목시켜, 일반 아파트의 주거 단지에서는 결여된 육아 프로그램들이 건축 내부로 활성화되게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공동체적 특성을 되살리고자 한다. 이 계획의 주안점은 수직적인 동선과 프로그램이다. 저층부에는 아파트 주거민 뿐만 아니라 지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그 위층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역민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공간의 위계를 구분하였다. 그렇게 마당을 둘러싼 주거의 한 형태로, 우리는 이웃들간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계획하였다.





올래: 동네 골목에서 집 마당으로 통하는 길

장려상

TEAM | 이승수, 위영진



INTRODUCTION

공유 가능한 가치는 공동체의 정체성이자 기본 전제이다.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공유 가능한 가치를찾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육아 친화형 주거에서는 ‘육아’가 이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또 중요한 것은 물리적 환경이다. 무형의 ‘공유 가능한 가치’는 공동의 공간에서 구현된다. 과거 마을의 주민들은 축제, 품앗이, 가볍게 주고받는 인사를 통해 그들이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가능성을 갖는 공동의 공간이, 집 앞 현관 정도로 축소된 현재의 주거에서 공동체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의 재현을 통해 공동체를 다시 꿈꿔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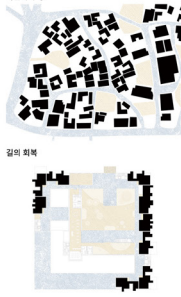


다시 마을로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를 말한다. 하지만 공간까지도 마을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가 가치를 얻을 때에도 마을이라 할 수 있는 집단이 형성된다. 공동체로 느껴지는 것이 때문이다. ‘우’의 공간이라는 공간 전체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느낌과 느낌은 공동체이다. 마을의 주민들은 일, 축제 등을 통해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공유 가능한 가치는 공동체 형성에서 가장 큰 것이다.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공유 가능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공동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의 재현을 통해 공유 가능한 가치를 다시 찾아보고자 한다.

컨셉 다이어그램

마을의 소통과 공유의 장, 길



길-마당-주택

유기적 관계를 지닌 주거 주체들



주거 유닛 소개

유닛 I, 유닛 II, 유닛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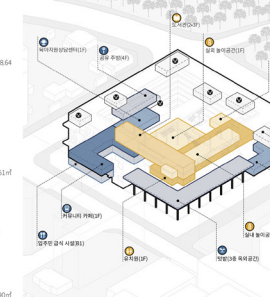
프로그램 구성

전용면적 78.54, 전용면적 66.51, 전용면적 1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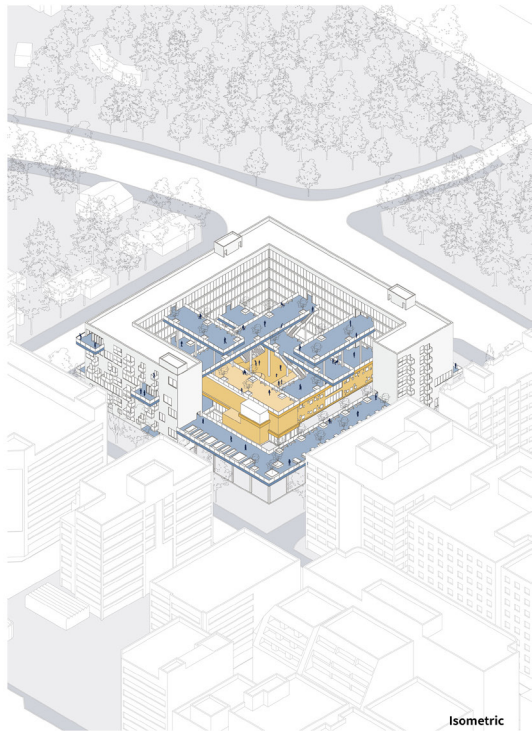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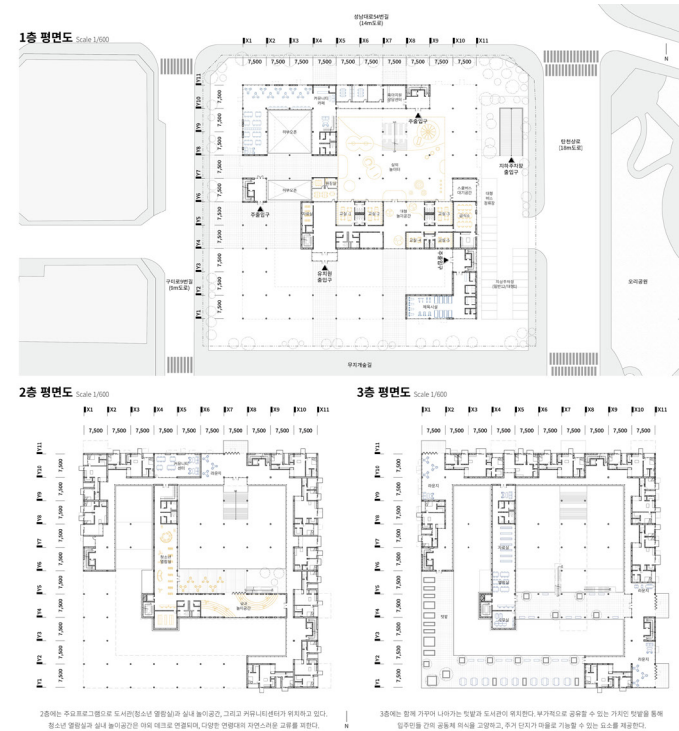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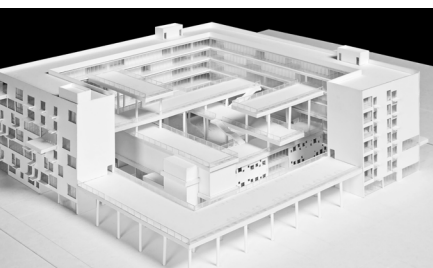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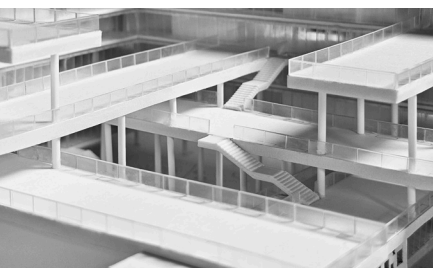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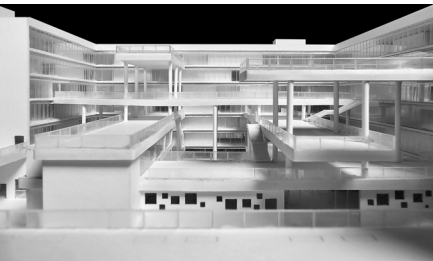
유치원

유치원 1, 유치원 2, 유치원 3



유치원

유치원 1, 유치원 2, 유치원 3



BE-LIE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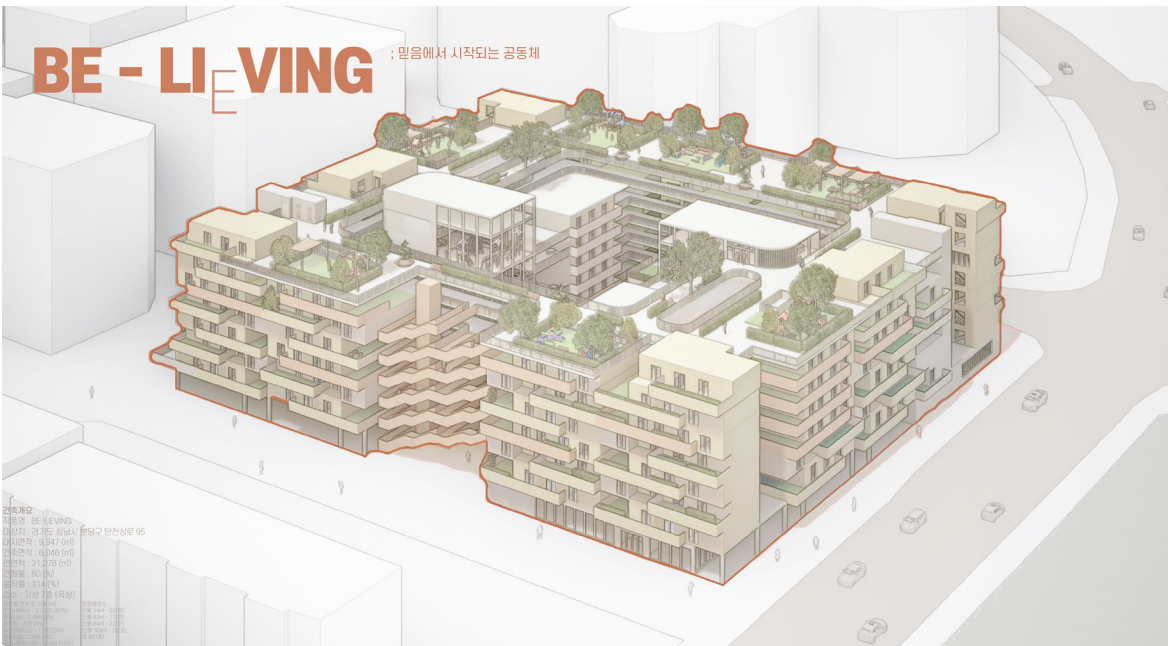
장려상

TEAM | 박예진, 윤새미



INTRODUCTION

과거 우리 사회는 함께 아이를 키우기도 하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바쁘고 남을 쉽게 믿지 않는 것 같다. 육아란, 혼자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육아친화형 공동주택의 시작은 바로 사라져 버린 ‘믿음’을 복구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첫 번째, 한 주거유닛 옆에 반드시 한 개의 테라스를 배치하여 가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복도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두 번째, 일상생활동선 내 커뮤니티동을 배치하여 몇마디 담소를 나누던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 공간을 제공했다. 세 번째, 커뮤니티동은 복층으로 구성하고, 각층마다 보이드와 계단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수직적 교류 또한 발생하도록 한다. 네 번째, 유치원 마을을 주거동에 둘러 싸이도록 배치하여 시선을 집중시켰다. 다섯 번째, 1층에는 육아지원시설을 두어 동네의 또 다른 양육자 또한 이 곳에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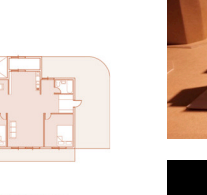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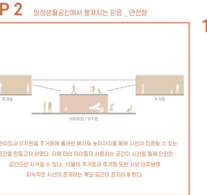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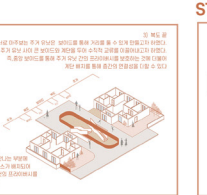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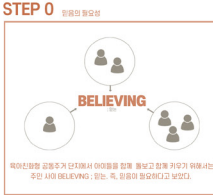
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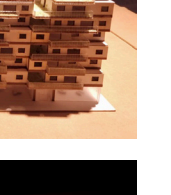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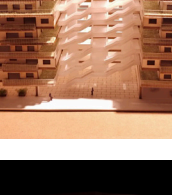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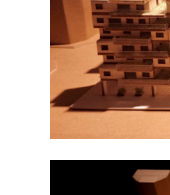
사이트 분석



주거 STEP _ 컨셉, 유닛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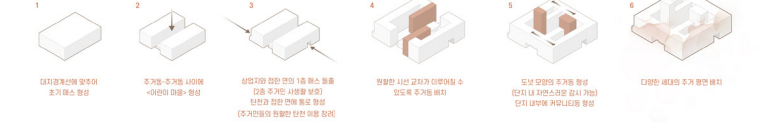
주거 유닛 구성 _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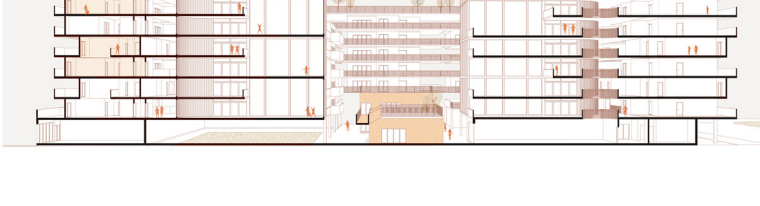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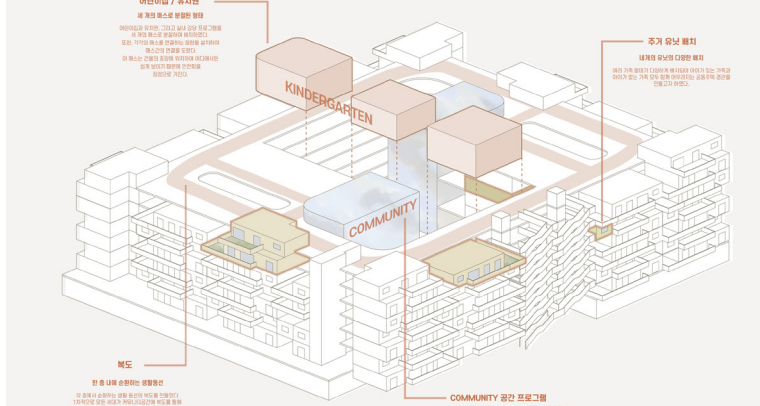
평면 구성 원리



매스 발전 과정



IS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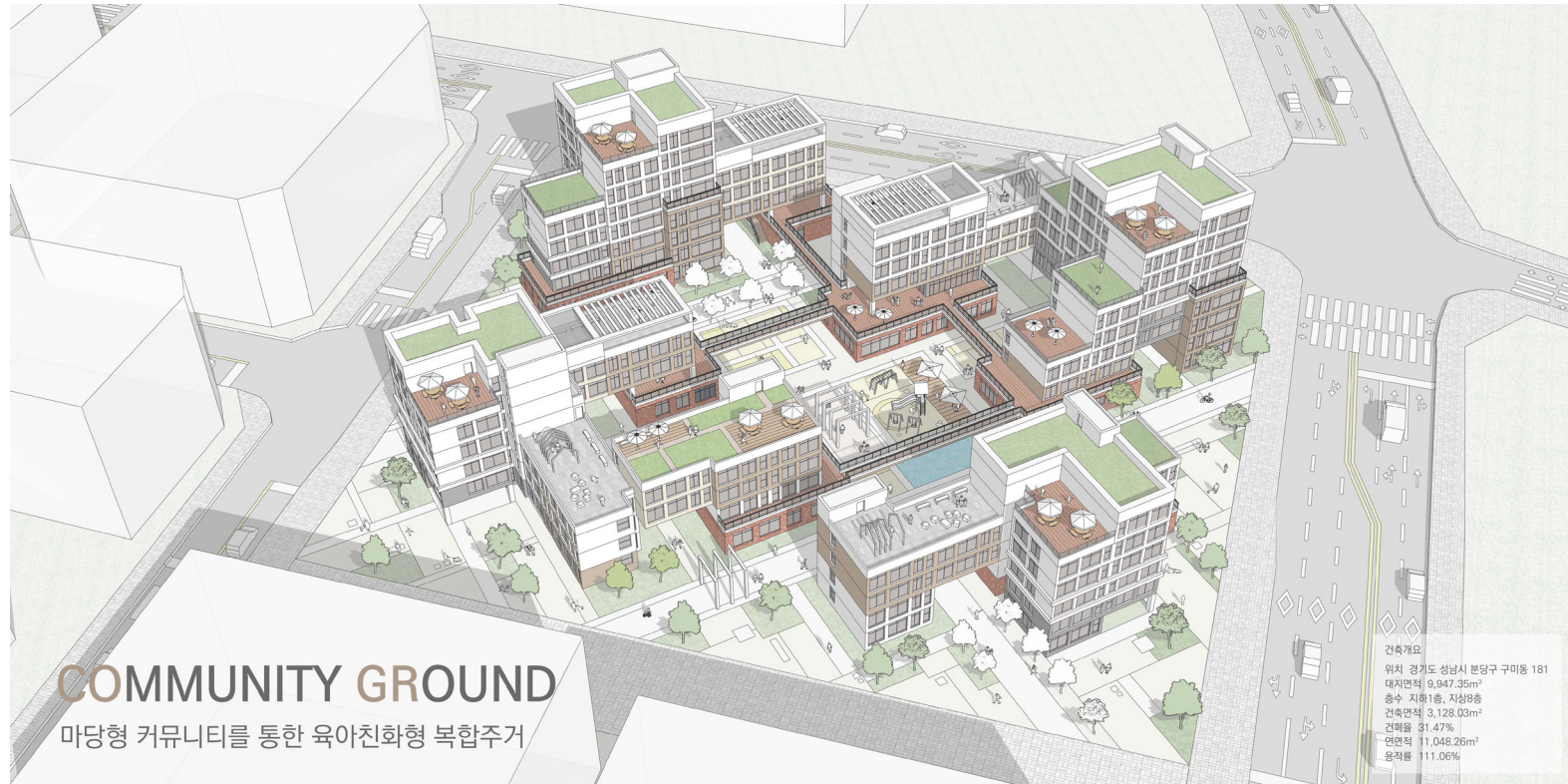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COMMUNITY GROUND

장려상

TEAM | 황우성, 김예지



SITE 분석

대안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1-1
대지면적: 9,947.35㎡
종수: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면적: 3,128.03㎡
건적률: 31.47%
연면적: 11,048.26㎡
용적률: 111.06%

프롤로그: 골목길과 마당, 그리고 커뮤니티

과거 마당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집 사이사이 골목길은 이웃들과의 우연한 만남이 있었고 만남을 통해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놀고, 부모들은 소소한 일상 이야기와 집의 정서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COMMUNITY GROUND에서 이러한 요소를 재해석하여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를 형성하고자 했다.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단지

본 단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1-1'에 위치하며, 총면적 9,947.35㎡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본 단지는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를 목표로 하며, '마당형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들과의 만남을 촉진하고, '골목길'을 통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들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마당'을 통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커뮤니티 그라운드

본 단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1-1'에 위치하며, 총면적 9,947.35㎡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본 단지는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를 목표로 하며, '마당형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들과의 만남을 촉진하고, '골목길'을 통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들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마당'을 통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주거 유닛

본 단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1-1'에 위치하며, 총면적 9,947.35㎡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본 단지는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를 목표로 하며, '마당형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들과의 만남을 촉진하고, '골목길'을 통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들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마당'을 통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INTRODUCTION

COMMUNITY GROUND는 과거 주거의 마당과 골목길을 재해석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공동주택을 제안한다. 과거, 마당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집 사이사이 골목길은 이웃들과 우연한 만남이 이뤄지고, 만남을 통해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며 같이 놀고 성장하며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갔다. 마당과 골목길을 따라 육아친화형 커뮤니티 시설들을 배치하고, 낯선 만남과 이벤트가 일어나도록 했다. 어디에서든 단지 중앙의 마당을 볼 수 있도록 주거동을 배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단지를 형성했다.

1층 평면도

기존층 평면도

단면 투시도

매스 프로세스

아이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장려상

TEAM | 장수원, 형지현



현재의 육아환경은 폐쇄적이다. **‘함께노대? 함께놀래!’**는 현재의 공동 주거가 다시금 이웃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소유의 개념이 점차 공유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에서 찾아냈다. 물질적 공유와 경험적 공유를 위한 공간, **‘함께노대’**가 바로 그것이다. 과거에는 골목길과 같이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간이 집 근처에 즐비했고, 그 공간들 속에서 이웃과 유대감을 쌓았다. 이제 그 역할을 **‘함께노대’**가 대신한다. 함께 노대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의 조각을 함께한다.



프롤로그_소유에서 공유로의 전환

사이트 분석

컨셉 설정

주거 모듈

1인 스위트 2인 친구

함께노래 노래할 땐코니,
취미가 없으면 '공부'를 전업으로

물리적 공부를 남이
시간을 짚어주는 경험의 공유로 이어지는



퍼지다

녹지와 연결되는 중심 속에 중심이
떨어 나가는 사람들

있는 '항적노대'를 유년
내밀한 곳에는 사적
대를 항적 노대라고

파였다.
또한 줄릴 수 있도록



100



54 | 2023 제2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COMMUNITY CARE HOUSING | 55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장려상

TEAM | 김민정, 채윤서



9개의 가변성을 지닌 유닛이 하나의 마을을 이룬다는 의미를 지닌, **EXTENSION TO VILLAGE**는 ‘마을로의 확장’이라는 뜻으로 주거자들을 개인의 주거 공간에서 마을로 행동반경을 확장시켜 공동육아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보다 공동육아의 개념이 줄어든 지금 저희는 커뮤니티 공간이 확장되는 주거 형태를 제안해 육아 친화형 복합 주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과거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주거 내부의 중정에서 마당, 주거 외부의 골목길을 지나 외부로 확장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과거 커뮤니티 시설 확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각 주거의 가변형 공간에서, 복도로, 더 나아가 각 층의 공동육아 공간으로, 그리고 각 동의 중정으로 확장되는 점진적인 육아 공간의 확장을 통한 육아 커뮤니티 형성이 이 단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모두의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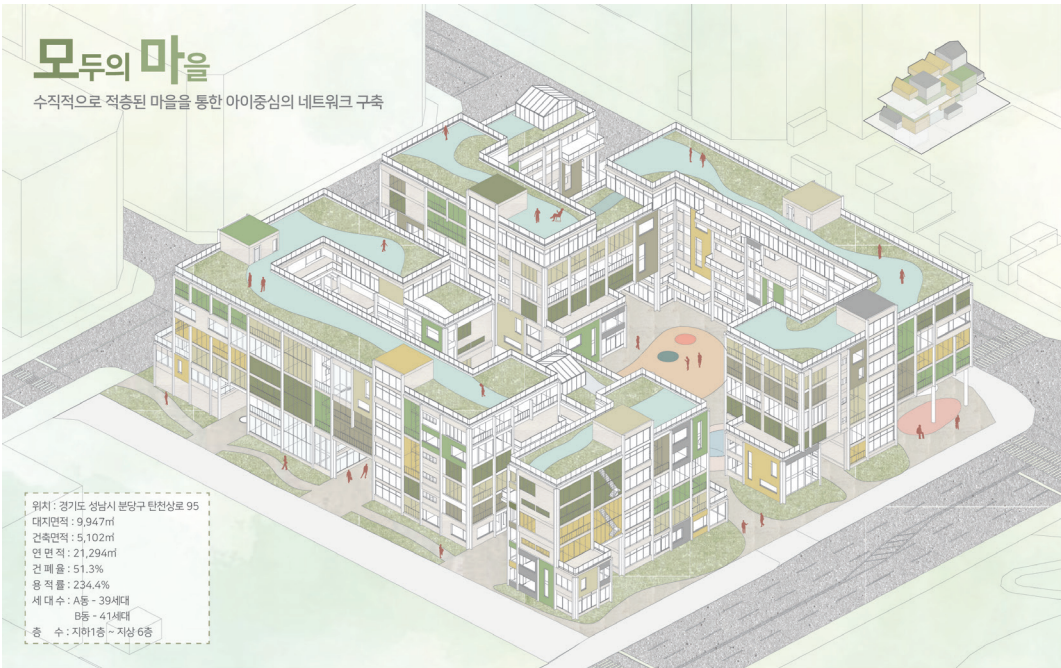
장려상

TEAM | 서영선, 문하은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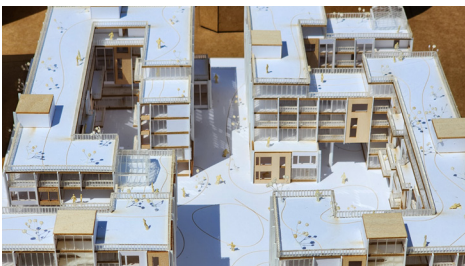
과거 공동체의 중심은 '아이의 돌봄과 교육'이었다. 집 사이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만남의 장소였다. '마을 안의 어린이 공간'들은 다양한 사람과 작은 단위의 마을 공간들을 연결하며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점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마을의 개념을 수직적으로 적층시켜 다양한 세대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중심에 중정을 형성하고 다양한 놀이터를 계획하여 주거유닛의 자연감시를 유도하였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은 주민들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 여러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유닛과, 단지 중정을 향한 테라스를 통해 자연스러운 시선의 교류가 발생한다. 단지 내의 복도와 테라스, 다양한 스케일의 틈과 마당, 프로그램들은 '마을 골목'으로써 주거 공간의 일부가 될 수 있고, 개인의 특화된 장소가 될 수도 있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 공유 공간이 될 수도 있다.



Design Process



Program - Life Style Type



SYNOP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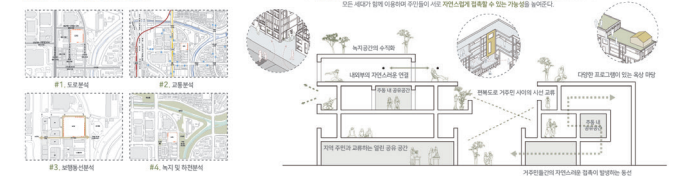
CONCEPT - "마을의 회복"



Unit Plan -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평면타입



SITE ANALYSIS



Perspective View



#2.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3. 다양한 나이의 테라스와 입면



#4. 지역주민들의 열린 커뮤니티 공간



Site Plan



A-A' Section Perspective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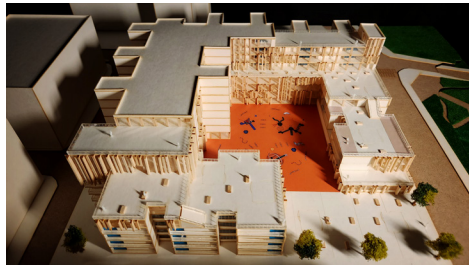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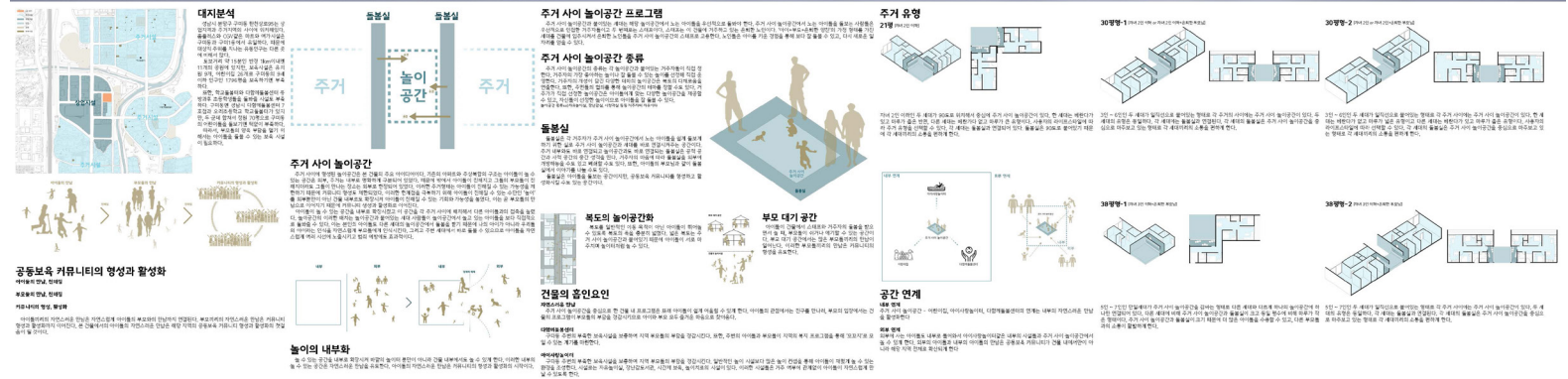




모든 꼬마들이 모이지 ; 모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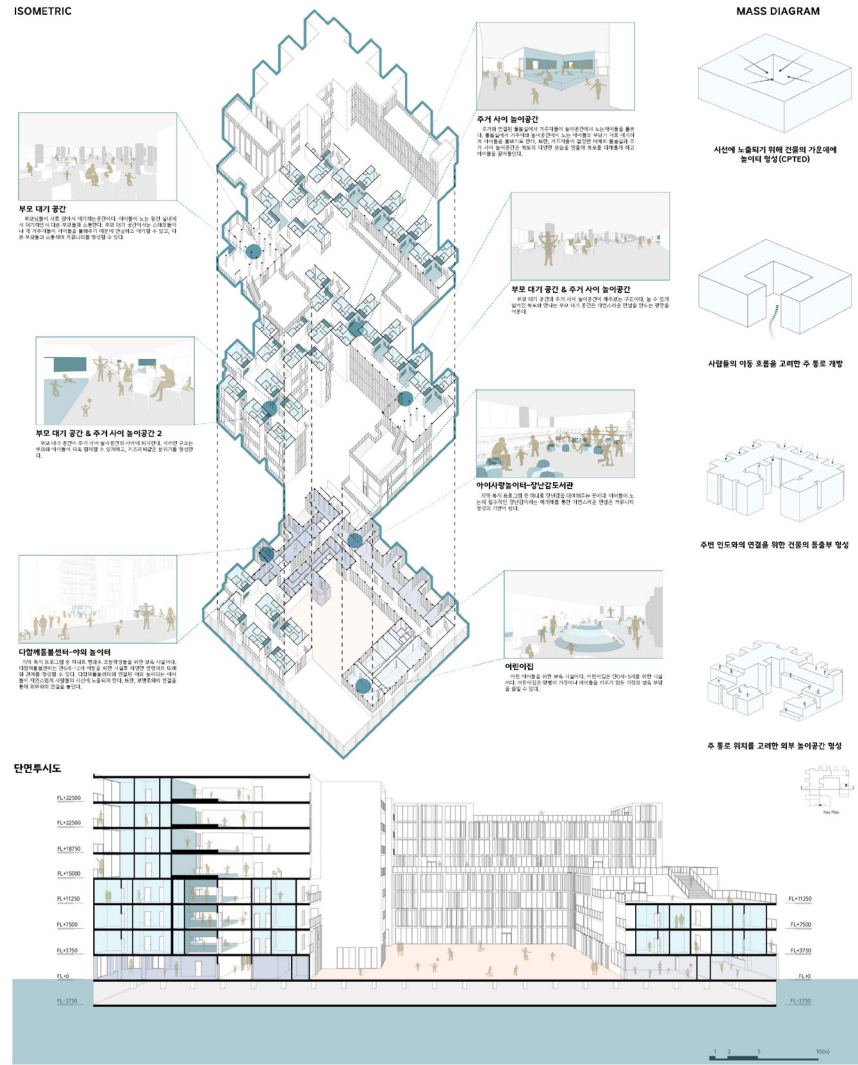
장려상

TEAM | 최유승



INTRODUCTION

요즘 우리의 주거 공간과 놀이공간은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어 있다. 내부에서도 놀 수 있다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좀 더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모꼬지는 놀이의 내부화를 통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드는 주거 공간을 제안한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일어났던 친구들과의 만남과 부모님들의 만남은 주거 지역 내에서 하나의 주거 보육 커뮤니티를 형성했었다. 아이들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드는 놀이터의 매커니즘을 주거 공간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며 내부의 주거 사이 놀이공간을 중심으로 지역복지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를 통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했다. 아이들의 만남은 곧 부모들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자녀 보육 커뮤니티의 형성과 확산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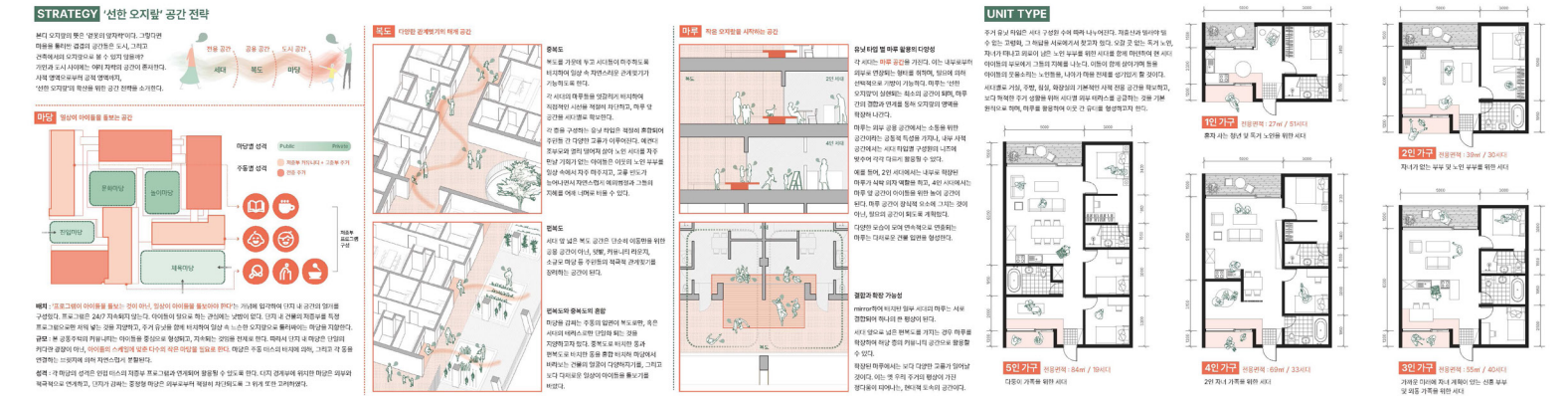




선한 오지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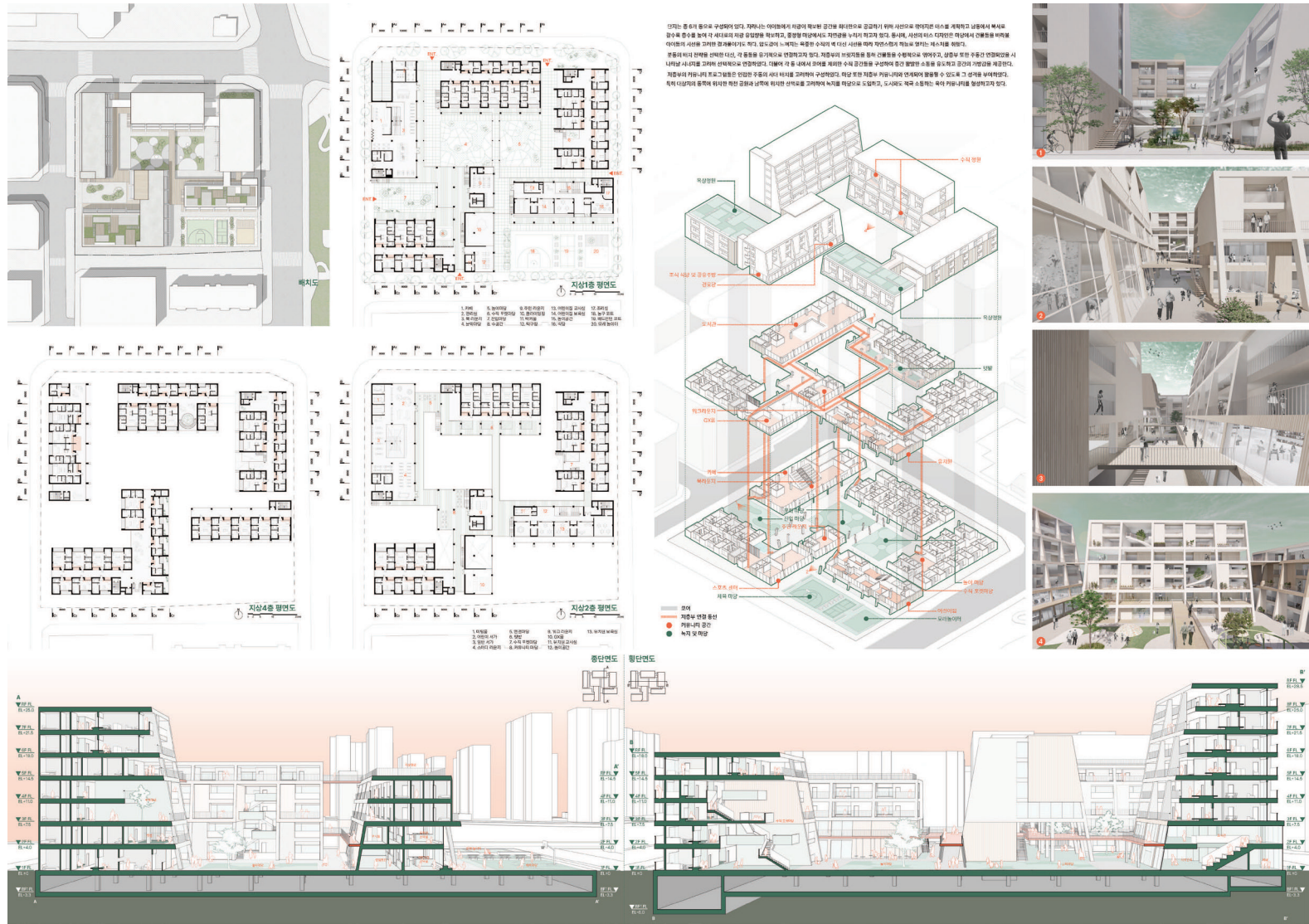
장려상

TEAM | 이승준, 정현지



INTRODUCTION

오지랖이 사라졌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오지랖이 불편하고 무례한 것으로 여겨진다. ‘선을 넘지 마세요’를 표방하는 지금의 시대, 행여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괜한 오지랖으로 여겨질까 걱정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힘을 얻고 의지하는 관계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참견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다정한 무관심’의 사회가 아닌, ‘선한 오지랖’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천천히 느긋한 오지랖을 부리며 관계맺는, 아이들을 위한 따스한 커뮤니티의 공간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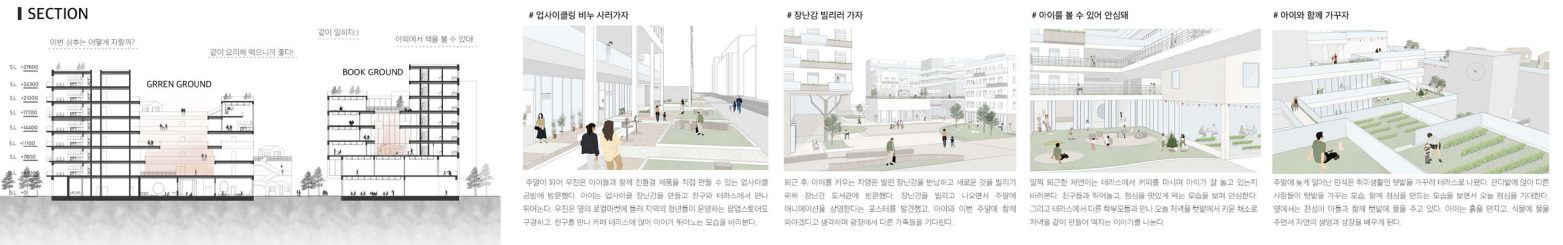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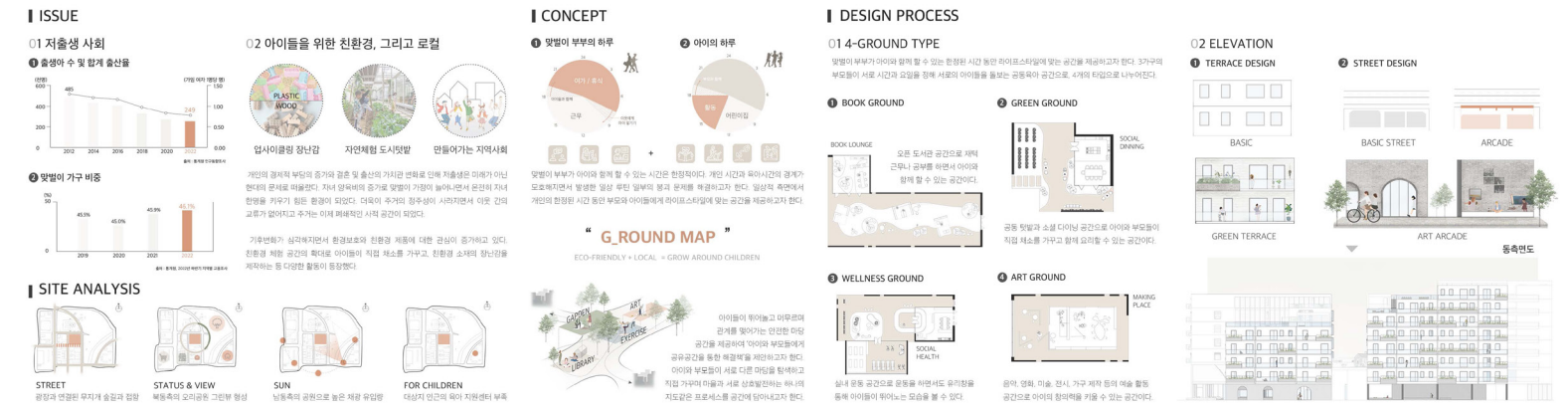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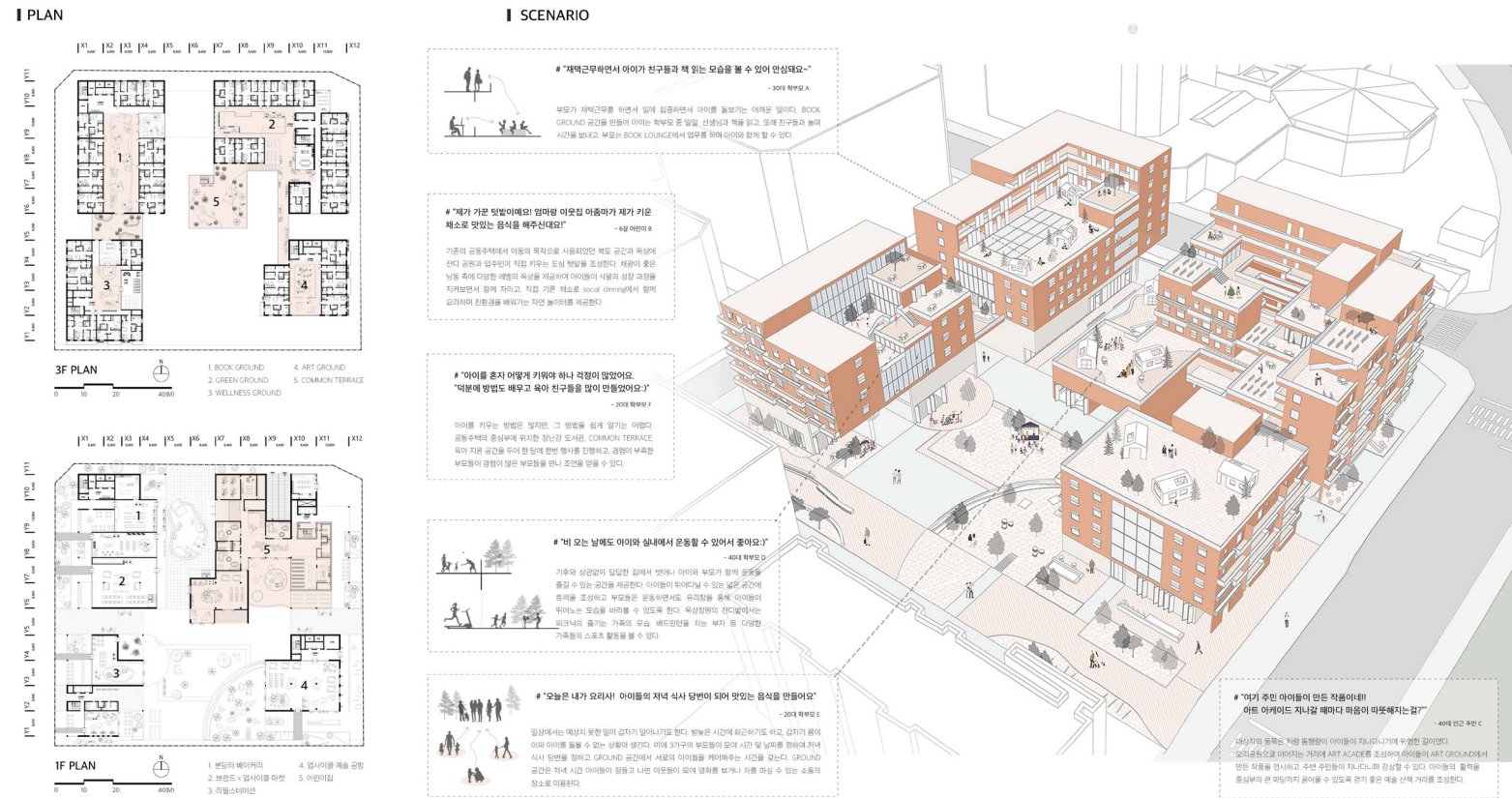
장려상

TEAM | 김우진, 구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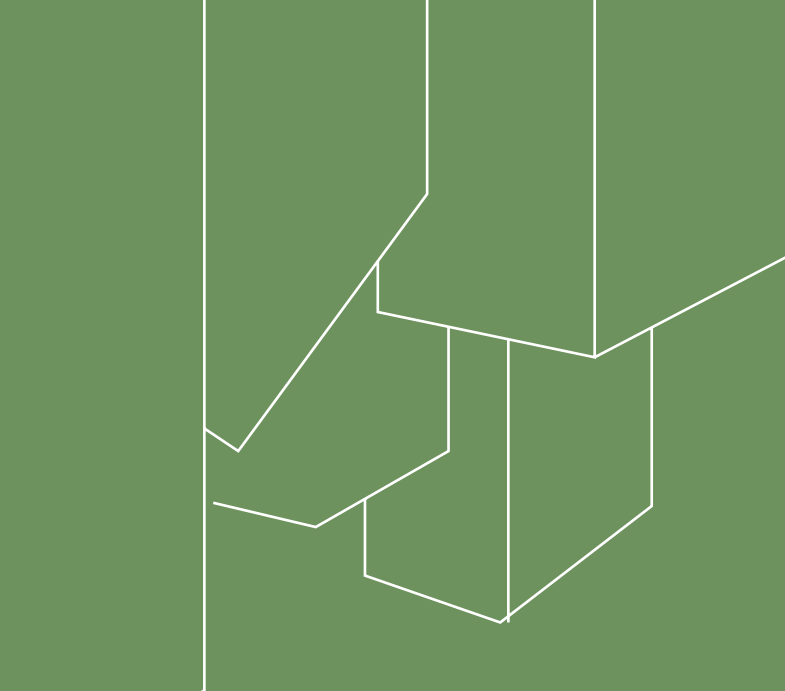
INTRODUCTION

G_ROUND MAP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머무르며 관계를 맺어가는 안전한 마당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와 부모들에게 공유공간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와 결혼 및 출산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저출생은 미래가 아닌 현대의 문제로 떠올랐다. 자녀 양육비의 증가로 맞벌이 가정의 늘어나면서 온전히 자녀 한 명을 키우기 힘든 환경이 되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다. 오늘날 개인 시간과 육아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한 일상 루틴 일부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3가구의 부모들이 서로 시간과 요일을 정해 서로의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육아 공간을 통해 아이와 부모들이 서로 다른 마당을 탐색하고 직접 가꾸며 마을과 서로 상호발전하는 하나의 지도 같은 프로세스를 담아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변과 상생하는 육아 친화형 공동주거가 발전하길 기대한다.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2023 | 제2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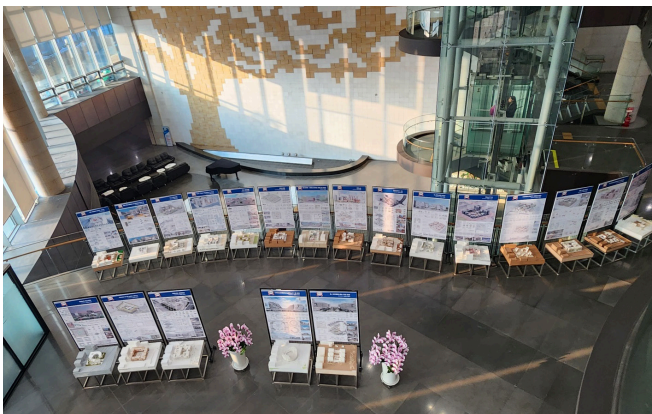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



03 GALLERY

- 갤러리





제2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 -

발간일	2023. 12
발간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펴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단	처장 류옥현 부장 최승영 차장 이유경 대리 노승지
홈페이지	www.lh.or.kr
전화번호	055) 922-5803
편집제작	제이트리웍스 070-8098-8696

※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023 | 제2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